

單面과 多面: 宋元話本小說의 人物 '對立' 관계 연구

— '主從人物'의 역할 관계를 중심으로

김명구*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人物對偶'와 '人物對立'
- II. 인물의 역할을 따른 '對立' 관계
 - 1. 主主人公의 對立
 - 2. 主從人物의 對立
 - 3. 從從人物의 對立
- 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人物對偶'와 '人物對立'

중국고전소설에서의 '인물'은 배경, 주제와 더불어 작품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소설 작품의 다른 구성요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인물'이 작품에서 사건과 줄거리, 배경과 서사, 상징과 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소설 연구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연구는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폭넓게 이해시키고, 줄거리 전개와 내용을 더욱 더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심리현상과 작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듯 작품속의 인물 연구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여, 소설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제와 의미 연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러한 '인물'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인물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사기술과 수사기교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집

* 明知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한계는 등장인물을 사건을 이끌어 가거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부로만 여기거나, 서술과 묘사가 어떤 한 인물(주로 주요인물)에만 집중되어 인물의 특징을 단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물을 사건과 줄거리에만 지나치게 결부시켜, 등장인물을 ‘善人’ 혹은 ‘惡人’의 한 부류로 귀속시키면서 이원적 대립의 특징만을 드러내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원적 대립을 통해서 ‘勸善懲惡’에 대한 당위성을 선양하고, ‘因果應報’라는 교화적 시각을 부각시키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보다는 인물의 특성을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구분 짓는 데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인물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연구는 인물을 단면적으로 관찰하게 하고, 인물의 특징을 확일적으로 구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하다. 비록 고전소설 속의 인물이 현대 소설 속의 인물처럼 복잡하고 다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비교적 정형화된 인물 형상을 구현한다고 할지라도, 주요인물이든 그렇지 못한 인물이든 각기 개성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물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비교적 확일적이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개념, 즉 ‘信義’와 ‘負義’, ‘施善’과 ‘行惡’, ‘優雅’와 ‘卑俗’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인물의 특수한 성격과 다양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속의 인물은 대부분 ‘勸善’과 ‘懲惡’의 대상으로만 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勸善’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요인물에 대해서만 묘사를 집중하므로 보조인물에 대해서는 주요인물의 그림자쯤으로만 여기고 그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요인물 위주의 단편적인 연구는 바로 중요인물 간의 대립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보조인물과의 관계와 보조인물만의 특징을 홀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인물을 확일적인 특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개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만든다. 예를 들면, 주요인물이 惡人과의 대립에서는 강경하고 단호한 면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의 결정을 도와주는 조력자, 혹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관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유약하거나 소극적인 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신분이나 직위,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역할, 사건의 중요도와 기여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이해와 반응, 수용과 거부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서로 존재하는 상태거나, 간단한 접촉(대화)을 가지거나, 주요인물의 행동을 작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웃하거나 관계를 맺으면서 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는 다른 인물을 통해서만 인물의 다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인물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러한 인물 간의 관계는 대우(對偶), 대비(對比), 유사(類比), 보완(正襯), 구별(對照), 부각(反襯)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 중에서 인물의 관계와 인물의 특징을 단면적이고 평면적인 시각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對偶’이다.

‘對偶’는 ‘對比’, ‘對仗’, ‘對照’라고도 하며, 서로 다른 사물 혹은 동일한 사물의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 비교하거나 구별하는 것인데,¹⁾ 소설 작품에서 나타나는 ‘人物對偶’는 두 명의 인물 혹은 동일한 한 인물이 서로 다른 사건이나 부분에서 서로 대비되는 현상이다.²⁾ 주로 소설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이 대구를 이루는 ‘雙體式’ 대우가 보편적이다.³⁾ ‘對偶’가 포함하는 범위는 선인과 악인, 남자와 여자,

- 1) 李光, 陳宗榮, 〈論《聊齋志異》人物塑造中的對照意識〉, 《蒲松齡研究》, 1999年 第3期, 58쪽 참조.
- 2) ‘對偶’는 수사학 관련 저서마다 그 분류기준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서로 대구’를 이룬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對偶’는 언어 형식의 수사적 특징(辭格)뿐만 아니라, 소설속의 인물, 배경, 사건, 서술, 議論 등 서사적 특징(辭式)에까지 적용된다. 또한 ‘對比’, ‘對仗’, ‘類比’, ‘對照’, ‘襯筆(正襯, 反襯)’, ‘合傳’ 등 유사한 용어들이 대량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비록 그것을 포함하는 범위와 수사적 특징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서로 대구’를 이룬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소설작품 속에서 서사적 수사기교로 운용되는 ‘對偶’는 우리말로 바꾸면 ‘대우’, ‘대구’, ‘대립’, ‘충돌’, ‘대비’, ‘비교’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를 제외한 용어들은 그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혹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물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물 간의 ‘對偶’관계를 ‘인물대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對偶’에 관련된 수사적 특징과 異稱을 포함한 다양한 정의와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黃慶萱, 《修辭學》(臺北: 三民書局, 2000年), 591-628쪽; 成偉鈞, 唐仲揚, 向宏業 主編, 《修辭通鑑》(臺北: 建宏出版社, 1996年), 527-531쪽, 812-827쪽, 817-818쪽, 829-838쪽, 1146-1153쪽; 周啓志, 羊列容, 謝昕, 《中國通俗小說理論綱要》(臺北: 文津出版社有限公司, 1992年), 130-139쪽; 李光, 陳宗榮, 〈論《聊齋志異》人物塑造中的對照意識〉, 《蒲松齡研究》, 1999年 第3期, 58쪽; 王平, 《中國古代小說敘事研究》(河北人民出版社, 2003年), 274-309쪽, 387-414쪽.
- 3) 李光, 陳宗榮은 〈論《聊齋志異》人物塑造中的對照意識〉에서 《聊齋志異》를 대상으로 인

아이와 노인, 주인과 하인, 장군과 부하 등 다양한 신분과 계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물과 환경, 인물과 집단, 인물과 情景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인물의 대우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면, 소설 속 인물 간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인물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인물 간의 대우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찰하기 힘들다. 특히 인물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집중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만약 일정한 조건 없이 여러 인물들과의 대립을 모두 아우른다면, 한 인물이 작품 속 수 많은 다른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 인물의 대우 관계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며, 작품의 배경이나 사건의 진행도에 따라 대우의 긴밀함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소설 속 인물 간의 대우 관계가 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인물과의 관계로 산만하게 흩어지고, 인물 관계의 긴밀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밀도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작품에는 '善'과 '惡', '男'과 '女', '義'와 '不義', '肯定'과 '否定' 등 다양한 관념이 혼재하고, 등장인물은 각각 다른 인물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서로 무수히 많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물대우 연구의 범위를 동일한 성별의 인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인물로 확대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주요인물들 사이나 보조인물들 사이 혹은 주요인물과 보조인물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모호해져서,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고찰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형적인 신분이나 직위, 계층의 차이를 떠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일한 성별의 인물로 대상을 제한하며,⁴⁾ 실질적 관계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인물이 서로 연계를 이루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물 간의 대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⁵⁾

물 대조 방식을 세 가지로 정의한 바 있다. 먼저 한 인물의 언어, 행동의 表裏不同을 비교한 '獨體式' 대조, 다음으로 두 명의 인물이 서로 대비를 이루는 '雙體式' 대조, 마지막으로 여러 인물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多重式' 대조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李光, 陳宗榮, 〈論《聊齋志異》人物塑造中的對照意識〉, 《蒲松齡研究》, 1999年 第3期를 참조하기 바란다.

- 4)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성별 특징이 분명하지 않은 부류, 즉 道人, 仙人, 僧侶, 禪師 등은 이러한 범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5) 인물의 대우 관계를 동일한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인물 간의 '對立', '補充', '並列' 관계 구조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물의 대우관계를 동일한 성별 내에서의 연관성에 집중하여 고찰한다면, 모호하거나 혹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물 관계 구조와 그 속에

한 작품 속에서는 많은 인물 대우군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相反的 對偶’의 경우에는 ‘惡人’과 ‘善人’, ‘仙人’과 ‘俗人’, ‘鬼神’과 ‘사람’ 등이 있고, ‘相補的 對偶’에는 ‘惡人’과 ‘惡人’, ‘善人’과 ‘善人’, ‘鬼神’과 ‘鬼神’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성별 혹은 특징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주변의 대우를 이루는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물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속에서 인물의 대우를 주요인물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상의 행동과 언어, 태도에 따라 서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연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⁶⁾ ‘인물대우’는 단순히 비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우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인물의 특징을 다양하고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대우’는 宋元話本小說에서 ‘對立’, ‘補完’, ‘並列’의 구조로 보다 구체화된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관계형식 중에서 ‘對立’ 현상을 중심으로 인물의 다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宋元話本小說⁷⁾은 민간소설로서 다양한 인물들이 생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소설작품에서 볼 수 있는 지식인의 형상뿐만 아니라, 상인, 평민, 하층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고찰할 수 있으며, 평범하고 일반적이거나, 개성이 강한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상호간에 걸쳐 있는 다각적인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시대의 소설 작품보다 생활의 단면을 입체적으로 그려내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묘사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6) 주요인물 간의 대우가 아닌 주요인물과 보조인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요인물처럼 대우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작품 속에서 주요인물은 아닐지라도, 보조인물은 주요인물에서의 극단적인 대립과의 비교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조인물이 주요인물과 대우를 이루거나, 혹은 보조인물과 보조인물이 대우를 이루는 구조에서도 인물의 특징과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인물대우’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 7)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宋元話本小說 범위는 胡士瑩의 《話本小說概論》, 歐陽代發의 《話本小說史》, 程毅中的 《宋元小說研究》와 《宋元小說家話本集》의 목록을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작품을 연구범위로 삼았다. 이 이외에도 孫楷第, 鄭振鐸, 譚正璧, 樂衡軍, 韓南, 王定璋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宋元話本小說 범위를 46편으로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宋元話本小說 작품은 《清平山堂話本》, 《熊龍峰刊行小說四種》, 《三言》에 수록된 작품을 근거로 하였다. 宋元話本小說 범위와 고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金明求, 《虛實空間的移轉與流動—宋元話本小說的空間探討》(臺北: 大安出版社, 2002年), 3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핵심인 인물 간의 대우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다양한 인물 형상과 관계 구조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II. 인물의 역할을 따른 '對立' 관계

소설 작품 속에서 인물의 '對立' 방식에는 동일한 인물의 내·외부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인물 간의 관계에서 대우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⁸⁾ 인물 간의 대우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인물 간의 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인물 간의 '對立'일 것이다. 인물 간의 '對立'은 주로 인물의 의견이나 행동, 상황 및 태도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갈등, 불화, 심지어 투쟁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⁹⁾ 소설 작품에서는 '善人'과 '惡人'의 대립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립 관계는 이러한 양극의 극단적 인물의 대결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의견이나 태도, 성격과 상황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폭넓은 관념에서 살펴보면, 인물의 대립은 '善人'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惡人'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는 중요인물 사이, 혹은 보조인물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¹⁰⁾ 그러므로 대립의 범위를 일률적인 관계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비록 인물의 대립 중에

8) 辛穎은 그의 논문 〈論文學作品中的人物性格對照的三種方式及其作用〉에서는 인물성격의 대조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양자(자신과 타자)의 대조'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인물(자신의 내·외부)의 대조'이다. '양자의 대조'는 자신과 타자의 외부적 대조를 말하고, '동일한 인물의 대조'는 '인물의 表裏 對照'와 '내적으로 양립되는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辛穎, 〈論文學作品中的人物性格對照的三種方式及其作用〉(《職大學報》, 2010年 第1期)을 참조하기 바란다.

9) 肖燕伶, 〈人物隨世運 無日不趨新—《快嘴李翠蓮記》言語衝突淺析〉(《新疆財經學院學報》, 2005年 第3期), 69쪽 참조.

10) 常輔相은 그의 논문 〈淺談《紅樓夢》人物性格的對照方式〉에서 인물 간의 '對立' 현상을 '對照'라고 정의하고, 《紅樓夢》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세 가지 대조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인물의 외부적 대조 방식인데, 인물의 성격에 치중하여 구성 인물을 구별하고 서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인물의 내부적 대조방식인데, '靈'과 '肉', '社會'와 '個人', '善'과 '惡' 등 집단, 이념, 가치관의 특징을 서로 대조하여 드러내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 인물의 심화적 대조 방식인데, 이것은 인물의 외부 대조와 내부 대조가 혼합되어 있는 방식이다. 인물의 대조 방식에 대해서는 常輔相, 〈淺談《紅樓夢》人物性格的對照方式〉(《學術交流》, 1996年 第4期)을 참조하기 바란다.

서 ‘善人’과 ‘惡人’의 이원적 대립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인물 간의 다양한 관계를 자세히 연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善’과 ‘惡’이라는 분명하고 획일적인 ‘대립항’이 존재하므로, 이 관계망을 떠나서 다른 이념이나 시각으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의 대립 관계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모두 절대적인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화된 관계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인물의 특징과 인물 간의 유동적 관계를 고찰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善’과 ‘惡’의 대립은 주로 줄거리의 진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큰 사건 위주로 진행되는 중요한 서사를 떠나서는 그 대립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물 간의 다양한 관계는 중요한 사건의 대립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큰 대립 구조아래 얽혀 있는 수많은 작은 사건들과 그것에 연관된 인물, 관계의 과정에 상세히 드러난다. 단지 몇몇 주요인물의 획일적 대립은 큰 사건과 굵직한 대립 구조를 갖고 있으며, 큰 사건의 진행에 따라 개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인물과 인물의 관계는 오히려 작고 미미한 사건을 통해서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善’과 ‘惡’의 관계로만 제한하였던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인물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위의 인물과 그 대립 과정을 통해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여러 인물 간의 관계를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물대우의 대립 관계는 ‘善’과 ‘惡’의 갈등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대립 인물의 성격에 따라 ‘善人’과 ‘善人’의 대립, ‘惡人’과 ‘惡人’의 대립이 있고, 또는 善人도 惡人도 아닌 중간적 인물이 각각 ‘善人’과 ‘惡人’과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인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주요인물(主) 사이의 대립(이후 ‘主主인물의 대립’으로 칭함), 주요인물(主)과 보조인물(從)의 대립(이후 ‘主從인물의 대립’으로 칭함), 보조인물(從) 사이의 대립(이후 ‘從從인물의 대립’으로 칭함)으로 나눌 수 있다.¹¹⁾ 인물의 내부적 특징에 따른 분류(善人 혹은

11) 인물의 분류는 중국소설 작품의 서술환경과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인물형상의 체계에서 인물의 직위와 작용에 따라 ‘主角’과 ‘配角’ 혹은 ‘主要人物’과 ‘次要人物’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인물의 본성과 작가의 인물에 대한 태도를 근거로 ‘正面人物’, ‘中間人物’, ‘反面人物’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인물의 의식과 특징에 의해 ‘扁形人物’, ‘尖形人物’, ‘圓形人物’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스토

惡人)는 역할에 따른 분류(주요인물 혹은 보조인물)와는 달리,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善人에서 惡人으로의 변화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서 '善性'과 '惡性'을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인물의 성격에만 근거하여 인물의 특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여 인물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와 대립 구조가 희석되어 그 독특한 형상을 살펴보기가 어렵다. 비록 분류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다양한 인물 유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작품 속에서 인물의 대립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는 인물의 역할에 따라 분류한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이 적절할 것이다.

인물 관계에서 말하는 '대립'은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조성하고 어느 한 쪽이 승리와 이득을 획득하고 다른 한쪽이 징계, 파멸을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작품 속에서 서로 대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善'과 '惡'의 대립과 같은 극단적인 대항이 아니라, 인물의 역할이나 성격, 혹은 처지나 상황이 서로 대우를 이루어, 상대 인물과 상황에 따라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작품 속 인물의 대립에는 '善人'과 '惡人'의 대립을 제외하고 많은 대립 관계가 나타난다. 이들의 대립 관계는 주로 주요인물 간 혹은 보조인물 간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¹²⁾ 이러한 대립 형태는 크게 '主主人公의 대립', '主從인물의

리 전개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성격에 근거하여 '靜的人物'과 '動的人物'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소설 속에서 인물의 존재 상태에 따라 '虛像(虛的)人物'과 '實像(實的)人物'로 나눌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작품속의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主角(主人公)'과 '對象', '支使者'와 '承受者', '助手'와 '對頭', 인물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立體人物'과 '平面人物'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중국소설이론에 관련된 저작에서는 인물의 유형을 다양하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말로 옮겼을 때에는 대개 '주요인물'과 '보조인물', '중심인물'과 '부차적 인물'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유형을 일컫는 우리말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으나, '반동인물'도 '주요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主角'과 '配角'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인물'과 유사한 용어로는 '중심인물', '중추인물' 등이 있으나, 용어의 통일성과 서술의 편리를 위해 '主角'은 '주요인물', '配角'은 '보조인물'로 하고자 한다. 소설 작품 속 인물의 분류에 대해서는 佛斯特著, 李文彬譯, 《小說面面觀》(臺北: 志文出版社, 1995年), 92-104쪽; 劉世劍, 《小說敘事藝術》(吉林大學出版社, 1999年), 100-111쪽; 馬振方, 《小說藝術論》(北京大學出版社, 2000年), 27-43쪽; 王平, 《中國古代小說敘事研究》(河北人民出版社, 2003年), 27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2) 常輔相, 〈淺談《紅樓夢》人物性格的對照方式〉, 《學術交流》, 1996年 第4期, 109쪽 참조.

대립, ‘從從인물의 대립’으로 나타난다.¹³⁾ 이 세 가지 대립 유형에서 중요한 사항

13) 작품 속의 주요인물과 보조인물 간의 대립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主主인물의 대립’은 주요인물 사이의 대립을 말하며, ‘主從인물의 대립’은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대립을 말하고, ‘從從인물의 대립’은 보조인물 사이의 대립을 말한다.

(◎: 인물 대립 관계가 2건, ○: 인물 대립 관계가 1건, △: 인물 대립 관계가 미약)

篇名	대립 관계			비고
	主主인물 의 대립	主從인물 의 대립	從從인물 의 대립	
淸平山堂 話本 (16/27)	<柳耆卿詩酒習翫樓記>			
	<簡帖和尚>			
	<西湖三塔記>			◎
	<合同文字記>			
	<風月瑞仙亭>			
	<藍橋記>			
	<快嘴李翠蓮記>		○	
	<洛陽三怪記>			○
	<陰騭積善>			
	<陳巡檢梅嶺失妻記>			
	<五戒禪師私紅蓮記>			
	<勿頸鴛鴦會>			
	<楊溫攔路虎傳>			
	<花燈橋蓮女成佛記>			
<曹伯明錯勘贓記>				
<錯認屍>				
熊龍峰刊 小說四種 (2/4)	<張生彩鸞燈傳>			
	<蘇長公章臺柳傳>			
喻世明言 (8/40)	<新橋市韓五賣春情>3			
	<趙伯昇茶肆遇仁宗>11	○		
	<史弘肇龍虎君臣會>15			
	<楊思溫燕山逢故人>24			
	<張古老種瓜娶文女>33	△	○	
	<宋四公大鬧禁魂張>36			
	<任孝子烈性爲神>38			
<汪信之一死救全家>39		○		
醒世恒言 (6/40)	<小水灣天狐貽書>6	○		
	<勘皮靴單證二郎神>13			
	<鬧樊樓多情周勝仙>14			
	<張孝基陳留認舅>17	○		
	<鄭節使立功神臂弓>31		○	○

은 대립을 조성하는 주체(支使者)와 당하는 대상(承受者)이 대부분 '善'과 '惡'의 어느 한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生'과 '死', '正義'와 '不義', '인간'과 '이물' 등의 일률적이고 이원적인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인물의 대립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자신'과 '타자', '인물'과 '대상', '주동자'와 '조력자' 등의 대립에 근거하여 '主'와 '從'의 관계로 살펴본다면, 단순히 '善'과 '惡'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호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대조에서 볼 수 없었던 보다 다양한 인물의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독특한 개성과 관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 主 주인공의 對立

'主 주인공의 대립'은 작품 속 주요인물 간의 대립을 말한다. 먼저, 《張孝基陳留認舅》(《醒世恒言》第17卷)을 살펴보면, '過遷'과 '張孝基'가 등장하는데,¹⁴⁾ 이 두

警世通言 (14/40)	<十五貫戲言成巧禍>33		○	○	
	<拗相公飲恨半山堂>4				
	<陳可常端陽仙化>7				
	<崔待詔生死冤家>8				
	<錢舍人題詩燕子樓>10				
	<范鰈兒雙鏡重圓>12				
	<三現身包龍圖斷冤>13				
	<一窟鬼癩道人除怪>14				
	<小夫人金錢贈年少>16				
	<崔衙內白鶴招妖>19				
	<計押番金鰻產禍>20				
	<金明池吳清逢愛愛>30				
	<皂角林大王假形>36				
	<萬秀娘仇報山亭兒>37				
<福祿壽三星度世>39					
《清平山堂話本》: 16篇 《熊龍峰刊小說四種》: 2篇 《喻世明言》: 8篇 《醒世恆言》: 6篇 《警世通言》: 14篇		宋元話本小說 46篇			

14)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살펴보면, 작가의 선명한 주제의식이 감추어져 있다. 먼저 '過善'은 평상시 남을 돕기 좋아하며, 항상 선행을 베푸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물은 상호보완적 대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품 속에서 줄거리를 이끌어 가고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過遷은 도박과 낭비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다.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쫓아온 하인을 때려 쓰러뜨린 후 실수로 죽인 줄로만 알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인 죄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구걸로써 겨우 목숨을 부지한다. 張孝基는 過遷의 妹夫로 過遷이 타향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過善의 딸과 결혼한다. 過善은 임종 직전에도 過遷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사위인 張孝基에게 물려준다. 張孝基는 장인이 물려준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면서도 사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고, 遺業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한다. 어느 날 張孝基는 하인과 함께 지방을 순회하다가 우연히 過遷을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에게 대대로 내려온 遺業의 새 주인이라고 소개한 후, 過遷에게 일을 혹독하게 시킨다. 過遷이 그의 밑에서 일하는 동안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비로소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부인 方氏와 재회하게 한다. 이때 그는 過善의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過遷에게 돌려준다.

다시 작은 상자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어 過遷에게 건네주며 말하였다. “이 문서는 이전에 장인이르께서 물려주신 것이니, 모두 돌려드립니다. 마침 이 술잔을 들어 형님께 권하오니, 이제부터 조심하고 주의하며, 능히 절약하고 근면하여 황천에 계신 장인이르른 뜻에 부합하도록 하십시오. 자만하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르러, 비로소 이전에 張孝基가 유산을 사양하며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진심이었음을 알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過遷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땅에 엎드려 울면서 말하였다. “..... 하물며 불초한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겼으니, 그 죄가 막중하여 속죄할 방도가 없다네. 지금 이 재산이 선친께서 자네에게 물려주고자 한 것이니, 만약 불초한 나에게 돌아온다면, 다시 아버지의 의지를 어기는 것이니, 나의 죄가 더욱

아들인 ‘過遷’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친(過) 선행을 행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릇된(過)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 ‘過遷’은 이름에서는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잘못을 고쳐 선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改過遷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過善’의 사위인 ‘張孝基’는 효성(孝)과 의리(義)의 기본(基)이 충실한 인물임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물의 이름과 작품 속 성격이 일치하도록 저자는 의도적으로 인물을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중되지 않겠는가!” 張孝基는 過遷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다. “형님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힘들게 고생하여 모은 재산은 사실 자손에게 물려주어 세세토록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뜻밖에 형님이 타향에서 떠돌아다니고, 또 가업을 계승할 아들이 없어서 저에게 기탁한 것뿐입니다. 이것 역시 부득이한 것이지 이것이 어찌 선친의 본마음이었겠습니까?”……過遷 역시 사양하고자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려고 욕심각심하며 받으려하지 않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¹⁵⁾

이 장면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張孝基가 물려받은 재산을 過遷에게 주려고 하고, 過遷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相讓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過遷은 이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자신의 처지를 감내하려 한다. 張孝基는 過遷의 신분을 알았지만, 임기응변으로 자신을 새 주인으로 소개하는 ‘기민함’을 지녔다. 또한 過遷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현명함’과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도리어 환원하는 ‘의로움’도 함께 가지고 있다. 張孝基의 ‘獨取’에서 ‘讓步’로 이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이 단락은 두 인물이 서로 대우를 이루면서 마침내 원만한 화합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비록 過遷과 張孝基는 서로 대비되는 성격의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善性和 惡性を 지닌 인물은 아니다. 작품의 줄거리가 중,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의 성격과 특징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사뭇 달랐다. 작품에는 過遷의 잘못만을 일방적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過遷의 몰락을 전적으로 부각시키지는 않고, 이후 改過遷善하는 과정에 좀 더 치중하여 묘사하고 있다. 過遷과 대립되는 인물은 張孝基인데, 張孝基는 처음부터 過善의 재산에는 욕심이 없었고,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過善이 임종하면서 모든 재산을 사위인 張孝基에게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張孝基는 자신의 것으로

15) 又在篋中取出一紙文書，也奉與過遷道：「這幅紙乃昔年岳父遺囑，一發奉還。適來這杯酒，乃勸大舅，自今以後，兢兢業業，克儉克勤，以副岳父泉臺之望。勿得意盈志滿，又生別念。戒之，戒之！」衆人到此，方知昔年張孝基苦辭不受，乃是真情，稱嘆不已。過遷見說，哭拜於地道：「……況不肖一生違逆父命，罪惡深重，無門可贖。今此產乃先人主張授君，如歸不肖，卻不又逆父志，益增我罪！」張孝基扶起道：「大舅差矣！岳父一世辛苦，實欲傳之子孫世守。不意大舅飄零於外，又無他子可承，付之於我，此乃萬不得已，豈是他之本念。」……過遷又將言語推辭，兩下你讓我卻，各不肯收受，連衆人都沒主意。

소유하려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잘 관리하여 過遷이 돌아오면 그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

이 두 인물은 서로 상대적인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서술과정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過遷이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人性을 회복하는 과정에 치중했다면, 張孝基는 처음부터 성실과 도덕을 겸비한 겸허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듯 두 사람은 ‘人性의 극적인 변화’와 ‘도덕정신의 지속’이라는 각기 다른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그 ‘변화’와 ‘지속’이라는 과정의 묘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비록 두 인물은 서로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충돌을 일으키거나 침예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들은 서로 대립을 이루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가치관은 하나로 일치하게 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만약 過遷이 없었다면 張孝基의 도덕적 人性은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張孝基가 없었다면 過遷은 어쩌면 평생 동안 남의 집에서 구걸하며 타향을 떠돌았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인생 역정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원만한 인성회복을 통해 모범적인 인간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비록 작품 속에서는 서로 대립적인 인물로 작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관계를 통해서 어느 한 쪽의 인물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존재와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張孝基陳留認舅〉(《醒世恒言》第17卷)에서 過遷과 張孝基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대립 관계였다면, 〈小水灣天狐貽書〉(《醒世恒言》第6卷)에서의 ‘王臣’과 ‘天狐(요물)’는 시종일관 ‘적대적’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작품의 도입부에서는 天狐가 두 마리가 등장하였지만, 王臣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면서 작품의 즐거이를 이끌어 가는 것은 한 마리이다. 물론 다른 天狐도 이후 여러 인물로 변신하여 王臣을 혼란에 빠뜨리지만, 서술 시각은 한 天狐에 집중되어 있다. 두 마리의 天狐중에서 비교적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天狐는 王臣의 돌팔매에 눈이 맞아 한쪽 눈이 다쳤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이름과 형상은 알 수 없다. 비록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럿이지만, 王臣과 눈을 다친 天狐이외의 인물은 작품에서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물론 다른 한 마리 天狐도 이 天狐(눈을 다친)를 도와 변신하여 天書を 되찾는데 일조를 하지만, 王臣과 대립하는 인물은 여전히 한쪽 눈을 다친 天狐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王臣과 天狐의 조우와 대결, 그리고 天狐가 王臣을 농락하는 과정을 긴박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王臣과 눈을 다친 天狐는 모두 네 번의 조우를 하였지만,¹⁶⁾ 모두 다른 공간에서 다른 형상으로 만나게 된다. 양자의 구체적인 조우와 대립의 과정을 살펴보면, 王臣이 전란을 피해 杭州 小水灣으로 피난을 갔다가, 난리가 평정되고 난 후 다시 가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는 도중에 숲속에서 두 마리의 여우가 天書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서 새총을 쏘아 내쫓고 天書를 얻는다. 후에 여관에서 머물게 되는데, 한 나그네가 天書를 보여 달라고 하자, 天狐가 사람(한 쪽 눈을 다침)으로 변신한 것을 알고 다시 내쫓는다. 다음으로 王臣은 長安으로 돌아가 가업을 정리하던 중, 급히 杭州로 돌아오라는 王留의 급보를 받고 가산을 정리하는데, 이미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杭州에 있던 가족도 서둘러 長安으로 돌아오라는 王臣의 급보를 받고 가산을 정리하여 돌아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天狐가 꾸민 것임을 알고 분개한다. 王臣 가족은 長安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杭州로 돌아오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王臣의 동생 王宰가 杭州로 찾아오고 그에게 그간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王宰이 天書를 보여 달라고 하여, 天書를 보여주자 王宰는 순식간에 天書를 가지고 도망간다. 王宰가 바로 이 天狐가 변신한 것을 알고, 王臣은 억울함에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른다.

‘王臣’과 ‘天狐(요물)’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王臣이 사건의 상황이나 과정에서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天狐가 사건을 주도하면서 王臣을 자기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갈등은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다가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적대적’ 대립 관계는 최고조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王臣과 天狐의 서로 다른 성격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王宰은 그 책을 전해 받고서는 앞에서부터 뒤에 까지 바로 펼쳐서 한 번 훑어 보더니, “이 글자는 과연 특이하군요!” 바로 몸을 일으켜서 대청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王臣에게 말하였다. “지난 날 王留가 바로 나라네. 지금 天書가 돌아왔으니,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소. 안심하십시오!” 王宰는 이 말을 하면서 곧장 바

16) 이 天狐가 한쪽 눈을 다친 天狐인지 아니면 다른 天狐인지 작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용의 전개와 서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 눈을 다친 天狐일 가능성이 높다.

같이 도망갔다. 王臣은 크게 화가 나서 급하게 앞으로 뒤쫓아 가면서 크게 소리 쳤다. “이 요망한 것이 간도 크게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러면서 한손으로 옷을 잡았다. 도망가는 기세는 순식간이고, 잡아당기는 힘이 맹렬하더니, 단지 펄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면서 한쪽 옷이 찢겨졌다. 그 여우는 아예 몸을 한 번 떨더니, 옷을 벗어버리고 본모습을 드러내었다. 요물은 문 밖으로 도망가더니만 마치 바람처럼 쏜살같이 사라졌다. 王臣은 가족과 함께 거리로 쫓아 나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림자조차 없었다. 王臣은 한편으로는 그 요물 때문에 가산을 크게 손해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요물 때문에 여러 번 골탕을 먹었으며, 또한 이 天書를 빼앗겨 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이를 갈면서 사방으로 눈을 부릅뜨고 찾았다.¹⁷⁾

王臣은 침착하게 일의 전후를 살피거나 논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승부욕이 강한 이러한 성격은 天狐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天狐에게 天書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행동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심지어는 天狐에게 다시 농락당한 것을 알고 분한 마음에 병을 얻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心中轉想轉惱, 氣出一場病來, 臥床不起), 이어서 진짜 동생 王宰이 어머니가 임종하셨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 역시 天狐의 농간임을 알게 되자 더욱 화가 치밀어 거의 혼절할 지경에 이르렀다.(又氣得個發昏) 이처럼 天狐는 자신의 목적을 두고 긴장의 완급과 태도의 강약을 조절하며, 주도면밀하게 王臣을 골탕 먹이다가,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만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 사건을 꾸미고, 상황을 조심해서 안배하는 성격은 王臣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天狐는 王臣과 끊임없이 타협의 접점을 찾고자 하였고, 또한 그에게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王臣은 天狐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그와의 타협을 거부한 채,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태도로만 일관했다. 王臣이 天狐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天狐가 王臣에 대해 유희적 감정

17) 王宰接過手，從前直揭至後，看了一看，乃道：「這字果然稀見！」便立起身，走在堂中，向王臣道：「前日王留兒就是我。今日天書已還，不來纏你了。請放心！」一頭說，一頭往外就奔。王臣大怒，急趕上前，大喝道：「孽畜大膽，哪裡走？」一把扯住衣裳，走的勢發，扯的力猛，只聽得聒喇一響，扯下一幅衣裳。那妖狐索性把身一抖，卸下衣服，見出本相，向門外亂跑，風團也似去了。王臣同家人一齊趕到街上，四顧觀看，並無蹤影。王臣一來被他破蕩了家業，二來又被他數落這場，三來不忿得這書，咬牙切齒，東張西望尋覓。

이 서로 상반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인간’과 ‘요물’이라는 주체에서 오는 행동의 차이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목적 추구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天狐와 그것에 반해서 자신의 감정을 거스른 天狐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비록 이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대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부재하면 다른 한쪽이 존재할 수 없는 관계이다. 이러한 대립은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다른 한쪽을 파멸시키는 극과 극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행동과 목적에 따라 반응하면서 태도의 수위를 조절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의 층위 조절은 주로 天狐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王臣과 天狐는 天書를 지키려는 의지와 되가져 가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에 수반된 생각과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극한의 대립 관계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중국고전소설에서 보이는 어느 한 쪽의 철저한 파괴, 소멸을 종용하지는 않는다. 天狐는 王臣을 대상으로 마치 한바탕 ‘戲弄’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이러한 ‘유희’가 王臣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王臣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天狐에 대한 분노를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¹⁸⁾ 두 인물(王臣과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

18) 天狐에게 天書를 다시 빼앗기고 난 이후의 사건에서도 天狐의 유희적 태도와 王臣의 분노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王臣은 天狐에게 天書를 빼앗기고서 쫓아 나가지만 결국 행방을 놓치고 분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그때 담벼락에 서 있던 눈먼 도사에게 天狐의 행방을 묻는다. 도사는 다른 방향을 가르쳐 주고, 그 쪽으로 달려간 王臣은 뒤에서 도사로 변신했던 天狐가 하인 王溜와 동생 王宰이 자신들이었다며 말하고 도망간다. 이후 진짜 王宰이 찾아오자, 집안의 하인들이 동생을 가짜라고 여기고 매질을 하는데, 王宰은 어머니가 입증하셨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 역시 天狐의 농간임을 알게 되어 王臣은 더욱 분노한다. (只見一個瞎道人，站在對面簷下。王臣問道：「可見一個野狐從那裡去了？」瞎道人把手指道：「向東邊去了。」王臣同家人急望東而趕。行不上五六家門面，背後瞎道人叫道：「王臣，前日王福便是我，令弟也在這裡。」衆人聞得，復轉身來。兩個野狐執著書兒在前戲躍。衆人奮勇前來追捕。二狐放下四蹄，飛也似去了。王臣剛奔到自己門首，王媽媽叫道：「去了這敗家禍胎，已是安穩了，又趕他則甚！還不進來？」王臣忍著一肚子氣，只得依了母親，喚轉家人進來。逐件撿起衣服觀看，俱隨手而變。/ 過了數日，家人們正在堂中，只見走進一個人來，看時，卻是王宰，也是紗巾羅服，與別妖狐一般打扮。衆家人只道又是假的，一齊亂喊道：「妖狐又來了！」……王宰問其緣故。王媽媽乃將妖狐前後事細說，又道：「汝兒爲此氣成病症，尙未能癒。」王宰聞言，亦甚驚駭道：「怎樣說起來，兒在蜀中，王福曾齋

는 天狐)은 작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작품에서는 王臣의 어머니, 王福, 王留, 王宰, 나그네, 도사 등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들 만큼이나 선명하고 분명한 개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비록 王臣과 天狐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서로 섞이지 못하고 각각의 생각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 극단적인 대립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장치일 뿐 아니라, 두 사람의 개별적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듯 작품 속에서 단독적으로 주요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적인 대립 관계를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인물 각각의 개성과 성격뿐만 아니라, 큰 줄거리 안에 모호하게 묘사되어 있던 인물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만약 〈張孝基陳留認舅〉(《醒世恒言》第17卷)에서 '過遷'과 '張孝基'가 '상호보완적' 대립 관계이고, 〈小水灣天狐貽書〉(《醒世恒言》第6卷)에서 '王臣'과 '天狐'가 '적대적' 대립 관계였다면, 〈趙伯昇茶肆遇仁宗〉(《喻世明言》第11卷)의 '趙伯昇'과 '仁宗'은 '조화적' 대립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면, 趙伯昇은 과거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仁宗은 합격자의 답안지를 보던 중, 趙伯昇의 답안지가 눈에 띄어 직접 그를 부른다. 仁宗이 趙伯昇 답안지의 글자가 잘못 쓰였음을 지적하자, 그는 자신이 글자를 잘못 썼음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仁宗은 그가 학문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낙방시켰다. 잘못 쓴 글자 때문에 과거에서 떨어진 趙伯昇은 東京을 떠돌려 힘들게 생활하였다. 그 후 仁宗은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서 苗太監과 더불어 꿈속에서 나타난 선비를 찾으러 나간다. 仁宗은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다시 趙伯昇을 만나게 되고 그의 반성과 재능에 감화되어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린다.

趙伯昇과 仁宗의 대립은 仁宗이 趙伯昇의 답안지를 보고서 그에게 오류를 지적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趙伯昇은 글자 하나를 씬에 있어서 '정확성'을 강조하는

書至, 也是這狐假的了!」王媽媽道:「你且說書上怎寫?」王宰道:「……兩月前, 忽見王福齋哥哥書來, 說: 向避難江東, 不幸母親有變, 教兒速來計議, 扶柩歸鄉。王福說: 要至京打掃塋墓, 次日先行。兒爲此辭了本官, 把許多東西都棄下了, 輕裝兼程趨來。纔訪至舊居, 鄰家指引至此。知母親無恙, 復到舟中易服來見。正要問哥爲甚把這樣凶信哄我, 不想卻有此異事!」即去行李中開出那封書來看時, 也是一幅白紙。合家又好笑, 又好惱。王宰同母至內見過嫂子, 省視王臣, 道其所以。王臣又氣得個發昏。)

仁宗의 의견에 '편리성'과 '융통성'을 강조한다. 결국 두 사람은 글자를 씬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서로 보이지 않는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 관계에서 우열의 정도를 살펴보면, 仁宗은 관직을 내리는 결정자(支使者)의 역할을 하고, 趙伯昇은 오로지 벼슬을 제수 받는 피동자(承受者)의 위치에 있어서 仁宗이 趙伯昇을 이끌어 가는 일방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¹⁹⁾ 나중에는 仁宗이 꿈속의 계시를 통해 趙伯昇을 주동적으로 찾고, 趙伯昇의 행동과 재능에 감동을 받는 장면을 비추어 보면, 仁宗과 趙伯昇은 어느 한 쪽이 우세하고 다른 한쪽이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처음 만남에서 대립하였던 두 인물은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비록 글자의 사용에 있어서 仁宗은 작은 것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하여 나아가 큰 것을 꿰뚫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趙伯昇은 큰 흐름을 먼저 살피고 작은 것은 이후 보완할 수 있다는 대립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仁宗이 인재를 찾던 중에 몇 번의 어긋남과, 마지막에는 부채를 잃어버리고 되찾는 우연의 과정을 통하여 趙伯昇과 협력과 조화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단지 임금과 선비의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일방적 관점에서 볼 수 없었던 상대적 반응을 통해서 인물 개개인의 특징과 관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자 사이에 조성된 긴장과 대립의 관계를 어떻게 원만한 협조와 이해의 관계로 이끌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張孝基陳留認舅〉의 '過遷'과 '張孝基', 〈小水灣天狐貽書〉의 '王臣'과 '天狐', 〈趙伯昇茶肆遇仁宗〉의 '仁宗'과 '趙伯昇'은 작품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 주

19) 王平은 그의 저서 《中國古代小說敘事研究》(河北人民出版社, 2003年)에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支使者'와 '承受者'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支使者'는 상대의 행동과 목표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고, '承受者'는 상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그는 '支使者'와 '承受者'가 일종의 '수용'의 관계를 가진다고 말한다. 인물 체계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趙伯昇茶肆遇仁宗〉을 살펴보면, 仁宗과 趙伯昇을 '支使者'이면서 '承受者'이다. 작품의 도입부에서는 趙伯昇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仁宗에 의해서 합격자 명단에 올랐지만, 趙伯昇의 잘못으로 인해 仁宗은 '합격불가'를 내리게 되는데, 이 때 仁宗은 '支使者'의 역할을 한다. 반대로 趙伯昇은 仁宗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承受者'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仁宗이 趙伯昇을 찾아가 그의 재능에 감탄하게 되는데, 이때의 '支使者'는 '趙伯昇'이고, '承受者'는 '仁宗'이 된다. '支使者'와 '承受者'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王平, 《中國古代小說敘事研究》(河北人民出版社, 2003年), 285-29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요인물이다. 이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인물 특징과 다양한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인물의 대결구조에만 국한되었던 전통적인 인물연구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過遷'은 '張孝基'와 대비되어 '改過遷善'하는 人性을 가지고 있었고, '天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인 '王臣'을 농락하지만 치명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仁宗'은 '趙伯昇'의 문장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그의 재능을 폄하하였다. 인물 간의 관계는 '對象'을 마땅히 제거하여야 할 '惡' 혹은 '敵'으로 '대립항'을 확정하고 인물 간의 대결 구도에 치중하여 인물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보다, 양자가 긴밀하게 반응하는 관계 구도를 가지고 살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 비록 이 양자는 표면적으로 대립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즉, 어느 한 쪽이 부재하면, 나머지 한쪽도 존재할 수 없는 필연적인 보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단독적으로 '善'과 '惡' 혹은 '人間'과 '妖物', '懲罰'과 '受罰'의 '對極'의 상황에서 인물의 관계와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적이고 이원론적인 대결 구도는 작품의 인물뿐만 아니라 주제도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인물의 대립 관계에서 대결과 선악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물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긍정하고 다른 한쪽을 부정하는 편향적 가치관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양쪽을 동일 선상에서 균형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물의 관계와 인물의 특징을 단면적이고 평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복잡한 대립 관계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관점으로 이들의 관계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2. 主從인물의 對立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대립은 주요인물 간의 대립이 작품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작품의 줄거리 전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인물 간의 대립보다 주요인물과 보조인물과의 대립을 통해서 주요인물의 특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보조인물이 주요인물에 비해서 어떠한 개성을 가지

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 관계는 적대적인 대결 구도를 이끌어내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의 특징을 보완하거나 부각시키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서로간의 연관성과 관계성을 통해서 상대의 개성과 특징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세부적인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인물은 전체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중요한 사건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건에 따른 ‘善’과 ‘惡’의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善’과 ‘惡’의 갈등과 대립은 인물 간의 적대적인 대결이나 충돌을 부각시킨다. 이때 주요인물은 작품 서술의 중심축이 되며, 작품의 전반적인 서술방향도 주요인물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굵직한 서술 구조, 즉 중요한 사건과 주요인물의 행동과 태도가 줄거리의 전개에 관건이 이루게 되므로, 주요인물의 미묘하고 세밀한 개인적 관계와 특징은 잘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은 보조인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소설 작품에서 인물의 역할에만 치중하지 않고,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대립 관계를 통한 서술구조 속에서 인물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사건위주로 진행되는 형식적 구조 속에서 간과했던 다양한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는 인물 간의 ‘對偶’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한쪽의 인물이 주가 되고, 다른 한쪽은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구를 이룬다. 이러한 대우 현상을 ‘相伴相生’, ‘伴生對偶’ 혹은 ‘對照相偶’라고도 한다.²⁰⁾ ‘人物對偶’는 인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로가 어떻게 호응하며, 어떻게 상호 관계를 지속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양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립을 이루는 경우는 성별이 다른 경우보다는 주로 동일한 성별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동일한 성별에서의 인간관계가 이성간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롭게 관계를 유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성별에서의 인물 관계에는 남성과 남성과의 관계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작품의 인물군에서 비록 여성이 등장하지만 남성에 비해서 그 수가 많지 않고, 주로 남성에 의해서 전체 줄거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宋元話本小說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작품의 인물 대립 구조에서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관계는 주로

20) ‘伴生對偶’ 개념에 대한 기원과 정의에 대해서는 丁謙, 〈西方文學中的伴生對偶原型〉,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8年 第5期를 참조하기 바란다.

남성과 남성사이에서 일어난다. 宋元話本小說에서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張古老種瓜娶文女〉(《喻世明言》第33卷), 〈鄭節使立功神臂弓〉(《醒世恒言》第31卷), 〈汪信之一死救全家〉(《喻世明言》第39卷), 〈快嘴李翠蓮記〉(《清平山堂話本》), 〈十五貫戲言成巧禍〉(《醒世恒言》第33卷) 등이 있다.

먼저 〈張古老種瓜娶文女〉의 '張公'과 '韋愨'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로 작품 속에서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韋愨는 황제에게 직간한 죄로 眞州 六合縣 滋生駟馬監判院으로 폄직 당한다. 그는 이곳에서 말을 관리하였는데, 玉獅子라고 불리는 백마가 실종되었으나 張公이 데리고 돌아온다. 韋愨는 부인과 딸 文女와 함께 張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갔는데, 나이가 여든인 張公이 文女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였다. 韋愨는 매파를 통해서 고의로 십만 관의 돈을 요구하여 결혼이 불가능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張公은 오히려 쉽게 십만 관을 준비하였고, 文女도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張公과 혼인하게 된다. 이후에 張公과 文女の 결혼 소식을 안 文女の 오빠인 義方이 나타나 文女를 데려오려고 桃花莊을 찾게 되고 그들이 신선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 작품에서 인물 간의 중요한 대립을 조성하는 인물은 바로 韋愨의 아들 韋義方이다. 韋義方은 작품의 주요인물로서 張公과 이후에 등장하는 申公과도 대립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 張公과의 대립이 비교적 강렬하고 직접적이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작품을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 즉 神仙과 俗人의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에서의 극적인 대립과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역할과 대립 관계에 있어서는 '主主인물의 대립'에 속한다. 이와는 다르게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대립('主從인물의 대립')은 張公과 그와 丈人인 韋愨와의 대립이 보다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韋愨는 張公과 작품의 도입부에서 대립을 조성하고 있지만, 작품에서는 단지 보조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韋愨의 등장과 퇴장의 과정은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전반부에서는 張公과의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韋愨 부부가 신선이 되었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맺는다. 韋愨는 비록 작품의 전반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전반부에서는 張公과 미묘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며,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줄거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면, 韋愨는 부패를 일삼고 자신의 욕심만을 탐

하는 무리들과 다르다. 그는 정직하고 기개가 있으며, 불의를 물리치고 사악함을 멀리하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이다(中心正直, 秉氣剛強。有回天轉日之言, 懷逐佞去邪之見). 또한 그는 의리와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신의와 겸손을 겸비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품을 갖춘 그에게도 張公의 비정상적인 제의는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張公이 文女를 아내로 취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張公을 응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文女の 결혼문제로 찾아온 매파에게 일부러 張公이 준비할 수 없는 만큼의 금전을 요구하며, 그 돈을 마련한다면 文女와 혼인을 시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張公에게 단숨에 제의를 거절하고 화를 내며 매파를 내쫓아 버려도 되었지만, 그러한 행위는 자신의 체면을 깎고, 매파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여기고, 매파를 통해 張公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게 한다.

술이 세잔이나 돌자, 부인은 張公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老父는 올해 여든이 되었다오.” 부인은 다시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식구가 몇인지요?” “혈혈단신이라오.” 부인은 말하였다. “어르신, 좋은 할멈을 만나 여생을 보내셔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맞는 사람이 없구려!” 부인이 물었다. “그렇군요. 일흔 살 정도의 할멈은 어떠신지요?” …… 부인은 물었다. “어르신, 지금 몇 살 된 배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열여덟 남짓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만약 이 여인을 배필로 삼는다면 만족합니다.” 韋諫議(韋恕)는 당시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어떤 것도 할 기세였다. 그가 한 말을 듣지도 않을뿐더러 수하를 모두 불러 노인을 때리려고 하였다. 부인은 말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특별히 찾아왔는데, 오히려 때리려고 하시다니요! 이 노인이 연로하여 말이 허황되고 분별이 없으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술그릇을 거두어서 돌아갔다. …… 韋諫議는 물었다. “무슨 일이요?” 張노파는 “박을 기르는 張노인이 분수도 모르고 오늘 사람을 시켜서 우리 두 사람을 불러서 아가씨를 배필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례로 여섯 냥 은자는 주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품속에서 은자를 꺼내어 대부(諫議大夫)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대부께서 승낙하신다면, 이 은자를 받을 것이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은자를 張노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韋諫議는 말하였다. “그 노인이 미친 것이 아니요? 내 딸이 이제 겨우 열여덟이고 일찍이 중매가 들어온 적도 없소이다. 지금 어떻게 당신이 여섯 냥 은자를 받도록 이 혼사를 승낙한단 말이요?” 張노파가 말하였다. “단지 대부께 묻고서 회답을 가지고 온다면, 여섯 냥 은자를 가

지라고 張노인이 말하셨습니다요.” 韋諫議는 이 말을 듣고, 손가락 끝으로 매파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기 분수도 모르는 그 늙은이에게 내말을 전하시오. 혼사를 성사시키려면, 내일까지 십만 관을 마련하여 납례로 보내시오. 오로지 돈(쇠천)으로만 받을 것이고, 돈 대신 다른 물품으로 일절 받지 않겠소.” 술을 가져오게 해서 매파에게 몇 잔을 권한 다음, 그들을 떠나보내었다.²¹⁾

韋愨는 文女를 張公에게 시집보내는 조건으로 십만 관을 요구한다. 이만한 돈은 張公이 꽃을 재배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張公의 요구를 거절하는 의미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張公은 이 돈을 마련하고 韋愨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약속한 바대로 張公을 사위로 맞아들인다. 張公의 기인한 행동과 생각은 현실적 논리에 충실한 韋愨와 첨예한 갈등을 조성한다. 이러한 대립은 단지 張公의 감정적인 ‘괴팍함’만을 부각시키고, 반대로 韋愨의 ‘이성적’인 행동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張公과 韋愨의 각각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서로 ‘맞서는 구도’는 단순히 張公과 韋愨의 인물을 개별적으로 형상화하는 것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대립 관계를 통해서 형상화된 개성도 단독으로 서술된 인물묘사보다 훨씬 짙고 세밀하다. 단순히 등장인물의 선함과 악함의 대립구도로만 인물의 특성을 살펴보는 구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보조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인물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21) 酒至三杯, 恭人問張公道: 「公公貴壽?」大伯言: 「老拙年已八十歲。」恭人又問: 「公公幾口?」大伯道: 「孑然一身。」恭人說: 「公公也少不得個婆婆相伴。」大伯應道: 「便是沒恁麼巧頭腦。」恭人道: 「也是說個七十來歲的婆婆。」……恭人說: 「公公, 如今要說幾歲的?」大伯擡起身來, 指定十八歲小娘子道: 「若得此女以爲匹配, 足矣。」韋諫議當時聽得說, 怒從心上起, 惡向膽邊生, 卻不聽他說話, 叫那當直的都來要打那大伯。恭人道: 「使不得, 特地來謝他, 卻如何打他?這大伯年紀老, 說話顛狂, 只莫管他。」收拾了酒器自歸去。……韋諫議問如何。張媒道: 「種瓜的張老, 沒來歷, 今日使人來叫老媳婦兩人, 要說諫議的小娘子。得他六兩銀子, 見在這裡。」懷中取出那銀子, 教諫議看, 道: 「諫議周全時, 得這銀; 若不周全, 只得還他。」諫議道: 「大伯子莫是風?我女兒纔十八歲, 不會要說親。如今要我如何周全你這六兩銀子?」張媒道: 「他說來, 只問諫議覓得回報, 便得六兩銀子。」諫議聽得說, 用指頭指著媒人婆道: 「做我傳話那沒見識的老子: 要得成親, 來日辦十萬貫見錢爲定禮, 並要一色小錢, 不要金錢准折。」教討酒來勸了媒人, 發付他去。

韋愨과 張公의 대립은 작품의 줄거리 진행에 있어서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이어가도록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張公의 청혼이 현실적인 면에서 무리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韋愨의 인물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韋義方的 仙境방문, 韋愨부부의 登仙 등에 영향을 미친다. 張公과 韋愨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이후의 사건과 작품의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대립이 없었다면 작품의 전개가 상당히 단조롭고 지루한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張公의 기이하면서도 진실한 면과 韋愨의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도 무리일 것이다. 이처럼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대립은 작품을 구성하고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양자의 인물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鄭節使立功神臂弓〉(《醒世恒言》第31卷)의 ‘鄭信’과 ‘夏德’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鄭信은 張員外の 도움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만, 무례한인 夏德의 계략으로 자신을 보살펴준 張員外가 강제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자, 이것을 참지 못하고 夏德와 겨루어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만다. 이어서 그는 감옥에 수감되고, 당시 옛 우물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기이한 사건이 생기자, 현령은 죄인들을 하나 둘씩 옛 우물에 들어가게 하지만 모두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그의 차례가 되어 우물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두레박을 건졌으나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하에서 日霞仙子和 부부의 인연을 맺고서 神臂弓을 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나온다. 나중에 張員外가 그와 日霞仙子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거두어들이고 鄭信과 아들과 딸은 마침내 상봉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鄭信이다. 그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鄭信의 용맹함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鄭信의 정의로움은 夏德과의 대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鄭信은 張員外의 배려로 主管으로 임명되었는데, 무례한인 夏德은 소고기를 대접한다는 핑계로 많은 돈을 요구하고, 張員外는 어쩔 수 없이 증서를 주어 鄭信에게 가서 돈을 타 가라고 한다. 그러나 鄭信은 夏德이 張員外를 헐박하여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주지 않고 그와 대결한다. 그와 겨루는 과정에서 서로의 풍채와 기용을 비교 서술하면서, 鄭信의 용맹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²²⁾

鄭信은 어찌 쉽게 그에게 주겠는가! 바로 夏扯驢에게 말하였다. “은자는 여기에 있소. 員外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분부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소. 당신이 東京의 무뢰한이라는 것을 빌미로 공연히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무서워하지만, 나 鄭信은 당신이 두렵지 않소. 지금 여러 員外 앞에서 당신과 한번 겨루어보겠소. 당신이 나를 이기면, 이 銀子를 당신에게 주겠소. 나를 이기지 못하면, 당신이 오랫동안 쌓아 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오.” 夏扯驢는 이 말을 듣고서, “정말 재수가 없군. 이런 뜨내기에게 무시를 당하다니.”라고 말하였다. 鄭信은 말하였다. “당신이 강하다니, 내가 세다느니 말하지 마시오. 이곳이 마침 넓으니, 당신과 승부를 내겠소.” 鄭信이 옷통을 벗자, 사람들이 보고서 감탄해 마지 않았다. 먼저 인제가 출중하고, 게다가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구나. 왼쪽 팔에는 세 신선이 검술을 겨루고, 오른쪽 팔에는 다섯 귀신이 용을 포위하네. 가슴에는 御屏風이 펼쳐져 있고, 등에는 巴山龍이 물에서 나온 듯하네. 夏扯驢도 옷통을 벗었다. 사람들이 보니, 사내의 몸에는 몽둥이와 사다리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누런 살덩이에 ‘忍’字가 가득했다. 두 사내가 회원에서 서로 싸우며, 승부를 걸었다. 鄭信은 주먹을 단단하게 쥐고서 태양혈을 정면으로 가격하였다. 夏扯驢는 폭하고 땅에 고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놀란 員外들과 기녀들이 모두 달아났다. 바로 아전들이 에워쌌다. 鄭信은 손뼉을 치면서, “나는 鄭州 泰寧軍 사람시오. 지금 張員外 댁에서 주무를 맡고 있소. 夏扯驢이 나의 주인을 속였는데, 나의 주먹이 단단하여 그를 때려 죽이고 말았소. 이 일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는 일이니, 나를 밧줄로 묶어서 데려가시오.”²³⁾

- 22) 鄭信과 夏德의 대립은 鄭信이 夏德에게 돈을 주어도 된다는 확인을 받으러 張員外를 찾아갈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張員外의 명령을 거부하고 夏德와 싸움을 벌일 때까지 鄭信의 성격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夏德은 鄭信의 끈은 성격과 용맹스러움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夏德은 鄭信의 성격을 돋보이게 하고 그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인 셈이다.
- 23) 鄭信那肯與他, 便對夏扯驢道: 「銀子在這裡, 員外教把與你, 我卻不肯。你倚著東京破落戶, 要平白地騙人錢財, 別的怕你, 我鄭信不怕你。就衆員外面前, 與你比試。你打得我過, 便把銀子與你; 打我不過, 教你許多時聲名, 一旦都休。」夏扯驢聽得說: 「我好沒興, 喫這客作欺負!」鄭信道: 「莫說你強我會, 這裡且是寬, 和你賭個勝負。」鄭信脫膊下來, 衆人看了喝采。先自人才出衆, 那堪滿體雕青。左臂上三仙仗劍, 右臂上五鬼擒龍。胸前一搭御屏風, 脊背上巴山龍出水。夏扯驢也脫膊下來, 衆人打一看時, 那廝身上刺著的是木拐梯子(一種古時紋身刺青花紋), 黃胖兒忍字。當下兩個在花園中廝打, 賭個輸贏。這鄭信拳到手起, 去太陽上打個正著。夏扯驢撲的倒地, 登時身死。嚇得衆員外和妓弟都走了。即時便有做公的圍住。鄭信拍著手道: 「我是鄭州泰寧軍人, 見今在張員外宅中做主管, 夏扯驢來騙我主人, 我拳手重, 打殺了他, 不干他人之事。便把條索子縛我去。」

鄭信과 夏德의 비교는 먼저 '取錢'과 '贈錢'의 입장에서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몸의 문신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난다. 두 인물의 대화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鄭信의 성격과 협박으로 한탕을 벌여 보려는 夏德 간의 강한 긴장과 대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격이 서로 다른 인물이 어떤 일정한 묘사환경 중에서 대비를 이루는 '反襯'의 수법을 활용하여, 선명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²⁴⁾ 특히 이러한 수사 기교는 구체적인 대결묘사에서 강하게 부각되는데, 대결하기 전에 각자 몸에 새겨진 문신과 풍채 그리고 분위기에 대한 편쪽을 어느 정도 할애하지만, 막상 실제 대결에 있어서는 승패가 의외로 쉽게 결정되어서 사전에 보여주었던 긴박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것은 서술묘사의 기법으로 상대의 약한 면과 허점을 강조하면서 주요인물의 대범함을 제고시키지만, 실제 대결에 생략과 절제의 수법을 이용하면서 주요인물의 용맹성을 부각시키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鄭信에 대해서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가슴과 등에 새긴 문신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그려냄으로써 그의 비범함을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²⁵⁾ 그에 비해서 夏德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도안이 단순하고 간단하여 鄭信의 그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鄭信과 夏德은 작품 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인물들이다. 鄭信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 인물이지만, 夏德은 鄭信의 불의에 참지 못하는 강한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인물에 불가하다. 鄭信은 夏德을 죽임으로써 오래된 우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두 여인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夏德은 鄭信을 '의로움'에 대적하는 '부정함'을 보여주는 데에만 치중한 인물이다. 夏德은 자신의 무례함과 난폭함을 수단으로 단지 張員外를 위협하여 돈이나 좀 더 뜯어낼 궁리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작품에서 흔히 보이는 '英雄'과 대결을 벌이는 절대적

24) 周啓志, 羊列容, 謝昕, 《中國通俗小說理論綱要》(臺北: 文津出版社有限公司, 1992年), 135쪽 참조.

25) 인물의 외모나 형상, 태도, 복식 등 외부적인 특징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수법을 '肖像描寫'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접적 서술법'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肖像描寫'에도 서술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외모와 태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관적인 감정이 포함된 객관적 묘사이다. 인물묘사에 있어서 '간접적 서술법'에 대한 설명은 劉世劍, 《小說敘事藝術》(吉林大學出版社, 1999年), 117-12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 '惡漢'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夏德은 극악무도한 인물로 鄭信과 긴장된 국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지는 않는다. 작품 속에서는 주로 鄭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鄭信과 夏德은 비록 主從인물의 대립 관계에 있지만, 鄭信은 夏德의 등장으로 인해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더욱 분명해지며,²⁶⁾ 鄭信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夏德의 경우에는 鄭信과의 비교를 통해서 惡弊의 행동과 형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이처럼 鄭信과 夏德은 서로 主從인물의 관계에 있으면서 '외부적 대립'과 '내부적 대립'을 통해서 서로의 성격과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²⁷⁾

〈汪信之一死救全家〉(《喻世明言》第39卷)에서도 主從인물의 대립 관계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주요인물은 '汪信之'인데, 汪信之와 대립을 이루는 인물은 '程彪'와 '程虎' 형제이다. 汪信之는 二程(程彪와 程虎) 형제에 의해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족을 구하고 모반의 의혹을 풀다.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汪信之는 형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고향을 등지고 홀로 宿松縣 麻地坡로 와서 부를 이룬다. 그는 영웅을 좋아하여 많은 賓客들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二程 형제는 洪恭의 추천으로 汪信之를 찾아간다. 汪信之는 二程 형제에게 아들 世雄의 교육을 맡기며 臨按으로 떠나는데, 오랫동안 臨按을

26) 鄭信이 夏德을 때려죽이고 곧바로 자수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好漢이라고 치켜세운다(衆人見說道:「好漢子。與我東京除了一害, 也不到得償命。」). 鄭信의 등장과 夏德과의 대결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夏德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해악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단지 夏德만 등장했을 때는 張員外 대인에 대한 분노와 害惡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鄭信과 대결, 그리고 죽임을 통해서 張員外 개인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害惡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마을의 무뢰한이 돈을 뜯어내는 사건에만 그칠 수 있는 것을 鄭信의 등장으로 인해 사건화되고, 夏德의 악패를 응징하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미화되어 鄭信의 대범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방식은 주로 양자의 '내부적 대립' 방식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때 사회적 요구와 가치 이념에 따라 인물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외부적 대립'과 '내부적 대립'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을 '심화적 대립' 방식이라고 한다. 鄭信과 夏德의 대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심화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常輔祖, 〈淺談《紅樓夢》人物性格的對照方式〉(《學術交流》, 1996年 第4期), 11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머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二程 형제는 汪家에 머무른 지 오래되어 떠나려고 하였다. 汪世雄은 아버지 汪信之가 타지에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 허락 없이 함부로 재물을 내어주기가 힘들어 二程 형제에게 선물을 적게 주었다. 二程 형제는 불만을 가졌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고, 다시 洪恭에게 의탁하기로 한다. 그러나 洪恭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二程 형제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안 二程 형제는 洪恭과 汪信之를 조정에 모반했다는 누명을 씌운다. 결국 汪信之는 어쩔 수 없이 모반의 길을 가게 되고, 조정의 군대와 대적하게 되지만,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수한다.

이 작품에서 二程 형제는 원래 惡人の 축에 서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을 의탁할 재력가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汪信之가 없는 틈에 떠나려 할 때, 汪世雄이 준 선물은 턱없이 빈약하였고, 자신을 추천해 준 洪恭에게 다시 기탁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洪恭이 부인에게 닦달 받는 신세가 된 것을 보고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어서 洪恭의 부인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욕하자 그들은 汪信之와 洪恭을 함께 엮어서 모함할 계락을 세운다.

程彪와 程虎는 처음에는 洪教頭를 만나서 이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대하였다. 그들은 마음속의 생각을 자세히 털어놓고, 그에게 다시 한 번 좋은 곳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한차례 모욕을 당하고 나서는 화를 풀 방법이 없었다. 가지고 온 汪革의 회신을 아직 전해주지 않고서 속으로 생각하였다. '서신의 내용 가운데 서늘한 가을까지 기다려 그 약속을 실천하지는 등의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군? 마음속으로 마침 汪革을 원망하고 있으니, 그를 모반의 죄로 모함한다면, 두 군데서 받은 화를 모두 풀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계책이야! 좋은 계책이야! 단지 한 가지 일이 걸리는데, 이 서신에는 그런 물증이 없어서 고발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만약 여차 여차 한다면 몰라도.' 두 사람은 太湖縣을 떠나서 江州로 향하였다. 성 밖에 여관을 잡아서 행장을 잘 챙겨 두었다.……張光頭가 말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두 분이 安慶의 汪씨 댁에서 교련선생으로 있었다하던데,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났군요!" 程彪가 말하였다. "좋은 기회는 무슨! 거의 큰 일이 일어날 뻔 하였소!" 바로 귀에 가까이 대고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汪革은 오랫동안 그 지역을 장악했으므로, 점차 모반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소. 나에게 弓術, 馬術, 戰術을 배운 식객이 수천이오. 배운 것이 모두 정통하고 능숙하다오. 太湖縣의 洪教頭와 모의하여 가을에 함께 거사를 일으키려는 것이오. 우리

두 사람에게 옛 忠義軍을 규합하여 남몰래 내통하라고 하였지만, 우리들이 따르지 않고 여기까지 도망 온 것이오.” 張光頭은 “무슨 증거가 있소?”라고 물었다. 程虎는 말하였다. “서신을 나더러 洪教頭에게 전해 주라고 하였소. 나는 서신을 전해 주지 않았소.” 張光頭는 물었다. “서신은 어디에 있소? 내게 보여 주시오?” 程虎는 말하였다. “여관에 있소이다.” 세 사람은 술을 한 차례 마시고, 술값을 치렀다. 張光頭는 바로 두 사람을 따라서 여관으로 가서, 서신을 보고나서 말하였다. “이 일은 기밀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니, 절대로 누설하지 마시오.”²⁸⁾

汪信之는 호방하고 거칠 줄 모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더불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는 忠情과 義理를 소유한 인물이다. 그는 조정의 안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자, 자신은 더욱 더 자신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二程 형제는 나라와 대중의 안위보다는 현재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더 염두에 두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賓客을 잘 대해준다는 소문을 듣고서 汪信之를 찾아왔건만, 정작 그들이 떠날 때는 선물이 적어서 汪信之를 비난하고, 洪恭의 부인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 汪信之와 二程 형제는 서로 각기 다른 이상을 쫓고 있다. 汪信之는 이미 ‘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한 집착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것에 따른 명예와 권세도 있지만, 그것은 宿松縣 麻地坡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그는 조정에 쓰임을 받고 싶어 하고, 조정의 일원으로 소속되기를 바란다. 이에 반해서 二程 형제는 명예보다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각처를 떠돌아다니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28) 再說程彪、程虎二人，初意來見洪教頭，指望照前款留，他便細訴心腹，再求他薦到個好去處，又作道理。不期反受了一場辱罵，思量沒處出氣。所帶汪革回書未投，想起：「書中有別諭候秋涼踐約等話，不知何事？心裏正恨汪革，何不陷他謀叛之情，兩處氣都出了？好計，好計！只一件，這書上原無實證，難以出首，除非如此如此。」二人離了太湖縣，行至江州，在城外覓個旅店，安放行李。……張光頭道：「聞知二位在安慶汪家做教師，甚好際遇！」程彪道：「甚麼際遇！几乎弄出大事來！」便附耳低言道：「汪革久霸一鄉，漸有謀叛之意。從我學弓馬戰陣，莊客數千，都教演精熟了，約太湖洪教頭洪恭，秋涼一同舉事。教我二人糾合忠義軍舊人爲內應，我二人不從，逃走至此。」張光頭道：「有甚證驗？」程虎道：「見有書札托我回覆洪恭，我不曾替他投遞。」張光頭道：「書在何處？借來一看。」程彪道：「在下處。」三人飲了一回，還了酒錢。張光頭直跟二程到下處，取書看了道：「這是机密重情，不可洩漏。」

줄 권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인물들은 추구하는 가치관이 각기 다르고 행동하는 양태도 다르다. 汪信之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견해를 조정에 말하고, 군대와 대적할 때에도 자신이 나서서 지수하는 정정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二程 형제는 汪信之와 洪恭가 자신들에게 소홀히 대접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둘이 결탁하여 모반한다고 거짓을 꾸며내면서 몰래 그들에게 양값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이 두 인물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격, 그것에 따른 양극화된 행동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주요인물인 汪信之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汪信之와 二程 형제의 대립을 통해서 二程 형제의 웅졸함과 재물을 탐하는 이기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二程 형제는 보조인물로서 汪信之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속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 두 인물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결하지는 않는다. 汪信之가 지수하면서 자신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이유를 알고자 했을 때, 비로소 二程 형제와 대면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양자의 대립 구도보다는 진위를 판별하는 장면으로 작용하는 기능이 크다. 비록 이 두 인물은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장면은 보여주지는 않지만, 서신의 왜곡, 시기의 어긋남, 선물의 적음 등 간접적인 활동과 맞물려 작지만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汪信之와 二程의 대립 관계는 주요인물인 汪信之의 성격과 형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또한 二程의 심리와 특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快嘴李翠蓮記〉(《清平山堂話本》)에서 '李翠蓮'과 그녀의 가족, 친척들과의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앞에서 살펴본 〈張古老種瓜娶文女〉(《喻世明言》第33卷), 〈鄭節使立功神臂弓〉(《醒世恒言》第31卷), 〈汪信之一死救全家〉(《喻世明言》第39卷)에서처럼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의 일대일 대립 관계를 보이지 않고, 주요인물인 李翠蓮은 작품속의 모든 보조인물과 갈등을 형성하고 대립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부류와 계층, 신분, 성격의 소유자들과 李翠蓮은 매번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그녀의 '多言善辯(말이 많고 말대꾸를 잘하는)'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²⁹⁾ 이 작품에서는 李翠蓮을

29) 肖燕伶, 〈人物隨世運 無日不趨新—《快嘴李翠蓮記》言語衝突淺析〉(《新疆財經學院學

제외하고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그녀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운문'과 '산문'이 섞여 있는 작품 속 서술 중에서 대사의 주체가 확연하게 나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주인공 李翠蓮의 언어는 모두 운문식 대사로 처리되어 있고, 모든 보조인물과 서술부분은 산문식을 운용하였다.³⁰⁾ 李翠蓮은 시집가기 전 부모 형제들과의 갈등을 보여주었고, 시집가는 날은 張씨네 선생과 매과, 가마꾼과 갈등을 일으키고, 시집을 간 후에는 시부모와 백모, 시누이와 갈등을 일으킨다. 결국 남편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그녀를 내쫓게 된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친정에서도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상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자 결국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많은 보조인물은 입심 좋은 李翠蓮과 대립하면서 그녀의 비친화적 성격은 더욱 확고하게 드러났고, 그녀는 스스로 이러한 자아방어기제를 강화하여, 자신을 더욱 더 다른 인물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었다.³¹⁾ 그녀는 다른 인물과 갈등을 일으킬수록 대립 관계를 조성하고, 그렇게 할수록 독특한 성격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많은 보조인물의 개개인의 특징과 李翠蓮과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도 다방면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十五貫戲言成巧禍〉(《醒世恒言》第33卷)의 '劉大娘子'와 '靜山大王'의 관계에서도 主從인물의 대립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十五貫戲言成巧禍〉에서의 주요인물은 줄거리 매단계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른 작품에서의 주요인물처럼 일반적으로 강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인물을 주요인물이라고 규정하기도 상당

報》, 2005年 第3期), 71-72쪽 참조.

30) 張國風 지음, 이등연, 정영호 옮김, 《중국고전소설사의 이해》(전남대학교출판부, 2011년), 121쪽 참조.

31) 보조인물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주요인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고 이야기의 진행을 흥미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快嘴李翠蓮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李翠蓮의 부모, 오빠, 張선생, 매과, 가마꾼, 시부모, 백모, 시누이가 등장하여 李翠蓮과 참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李翠蓮과 다른 가치관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과정은 이야기의 진행을 더욱 흥미롭게 하고 있다. 고전소설에서 보조인물에 대한 특징은 김귀석, 〈古小說에 登場한 補助人物 研究—門客, 侍婢 等を 중심으로—〉(《人文科學研究》第19輯, 1997年), 11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히 모호하다. 물론 宋本에는 《錯斬崔寧》으로 되어 있어서 崔寧이 주요인물일 것 같지만, 崔寧은 전반부에 잠깐 등장해서 사라지는 인물일 뿐이다. 崔寧의 억울하게 죽은 사건을 두고서 다양한 인물이 나타나 사건을 이어가므로 어느 특정한 인물을 주요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매 단락마다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말하자면, ‘劉大娘子’라고 할 수 있다.³²⁾ 劉大娘子은 작품에서 주요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작품에서의 주요인물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 〈十五貫戲言成巧禍〉(《醒世恒言》第33卷)에서 나타나는 主從인물의 대립 관계는 ‘劉大娘子’와 ‘靜山大王’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관계는 작품 전체에서 대치→협조→대결의 구조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대립 관계를 통해서 靜山大王이 악행을 행하는 데에서 선행으로 바뀌는 과정과 劉大娘子的 정의를 밝혀내려는 의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물의 관계 속에서 主從인물의 대립은 주로 주요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작품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보조인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은 서로 상호 반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善人和 惡人の 이중적인 대립에서 나타나는 편향적이고 일률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인물과 보조인물 간의 대립과정에서 주요인물 뿐만 아니라 보조인물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형상과 성격은 인물의 특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 從從인물의 對立

‘主主인물의 대립’과 ‘主從인물의 대립’과는 다르게 ‘從從인물의 대립’은 작품 속 인물 관계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앞의 두 경우는 모두 주요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從從인물의 대립은 주요인물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기 때

32) 작품의 도입부에서 주요인물은 崔寧와 小娘子이며, 중후반부에서는 劉大娘子이다. 비록 崔寧, 小娘子, 劉大娘子 등이 주요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에서 담당하는 중요도는 여러 인물로 분산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은 劉大娘子라고 볼 수 있다.

문에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는 미약하다.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건과 서술은 대부분 주요인물과 그와 대립하는 인물의 관계 속에서 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여러 작품에서 주요인물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대립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주요인물을 보조하고 다른 인물 간의 특징을 부각시키며, 무엇보다도 줄거리 진행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보조인물이 존재한다. 보조인물 간의 대립은 비록 주요인물과의 대립 관계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품의 분위기를 이끌고 줄거리를 생동감 있게 전개하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물의 특징들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조인물 개개인의 특징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체 인물을 응집시키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물 간의 특징과 미묘한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宋元話本小說에서 從從인물의 대립이 나타난 작품으로는 <洛陽三怪記>(《清平山堂話本》), <西湖三塔記>(《清平山堂話本》), <鄭節使立功神臂弓>(《醒世恒言》第31卷), <十五貫戲言成巧禍>(《醒世恒言》第33卷) 등이 있다. 대립 관계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대립'과 '직접적인 대결'로 나눌 수 있는데, 간접적인 대립에는 <洛陽三怪記>(《清平山堂話本》)가 있고, 그 외의 작품은 직접적인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간접적인 대립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洛陽三怪記>(《清平山堂話本》)를 살펴보면, 河南府 章臺街에 금은방을 하는 潘松은 清明節에 교외로 賞春하러 갔다가 한 할멈(白聖母)을 만나게 된다. 그 할멈을 따라 오래된 정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王春春을 만난다. 그녀는 이웃집에 살고 있었는데, 수일 전에 병사하였다. 그녀는 潘松을 재촉하여 정원을 떠나게 하지만, 나중에 할멈이 다시 돌아와 潘松을 잡아간다. 潘松은 오래된 정원에서 赤土大王과 玉蕊娘娘을 만나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해치는 것을 알게 된다. 王春春의 도움으로 겨우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이후 할멈은 다시 나타나 그를 잡아가고 그때 또다시 王春春의 도움으로 탈출한다. 나중에는 蔣眞人의 도움으로 그들의 실체가 밝혀지고 潘松은 요물의 구속에서 풀려난다.

<洛陽三怪記>(《清平山堂話本》)는 <西湖三塔記>(《清平山堂話本》)와 유사한 서사 구조와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등장인물 또한 유사하고 보조인물 간의 대립

또한 상당히 비슷하다.³³⁾ 이 작품에서 주요인물은 ‘潘松’이다. 그리고 潘松과 여러 번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은 ‘할멈(白聖母)’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惡人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할멈의 비중은 다른 작품에서 惡人이 주요인물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정도가 미약하다. 할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악의 무리 즉 赤土大王, 玉蕊娘娘, 王春春 중에서 비교적 중요하고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인물인 潘松에 비해서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善人(혹은 인간)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惡人(혹은 요물)의 비중은 비교적 낮는데, 惡人의 비중도 한 인물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로 분산되었다. 악의 무리 중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잡아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할멈이다. 할멈은 사내를 잡아와서 玉蕊娘娘과 동침하게 한 후 그의 간을 빼내어 玉蕊娘娘와 나누어 먹는다. 할멈은 주로 사람을 잡아오는 역할을 하고, 玉蕊娘娘은 사내를 유혹하여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주요인물인 潘松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보조인물이다. 이들은 크게 인간과 요물(귀신)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인간의 부류에 있어서도 潘松의 부모와 같이 俗人과 徐守眞, 蔣眞人和 같은 道人까지 다양하다. 요물의 집단에 있어서도 사람을 잡아와서 노리개로 삼고 난 후 간을 빼서 먹는 玉蕊娘娘가 있는가 하면, 그녀를 보좌하여 인간을 해치는 赤土大王도 있다. 또한 요물의 소굴에서 潘松을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도와주는 王春春도 있다. 이러한 보조인물 중에서 從從인물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세 요괴(玉蕊娘娘, 赤土大王, 白聖母)³⁴⁾와 王春春과의 대립이다. 요물의 신분에서 가장 최상위 있는 인물은 玉蕊娘娘이고 가장 하층의 인물은 王春春이다. 王春春은 이 세 요괴가 이물이나 해골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귀신의 형태이다. 王春春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 특징(新死鬼)이 속세와 가장 근접하게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들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33) 〈洛陽三怪記〉와 〈西湖三塔記〉는 세 요물이 한 서생을 홀려서 위험에 처하게 하고 세 요물 중 조력자가 나타나 탈출하게 하지만 다시 붙잡히고, 나중에는 도사의 도움으로 세 요물을 처치한다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4) 玉蕊娘娘은 흰 고양이 요물(白貓精)이고, 赤土大王은 능구렁이 요물(赤斑蛇)이고, 白聖母는 흰 닭 요물(白雞精)이다.

그곳을 탈출하거나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다가 그녀의 이웃인 潘松이 끌려오게 되는데,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두 번이나 구해준다. 이러한 구명 행위는 요물의 집단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아마도 세 요괴가 이물의 변신임에 반해, 王春春만은 귀신이기에 때문에 사람에게 좀 더 근접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세 요괴가 철저히 獸性을 가지고 潘松을 대하지만, 王春春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사람이었기에 어느 정도 人性이 남아 있어 潘松을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人性을 가진 王春春이 獸性을 가진 玉蕊娘娘과 할멈과의 관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앞에 있던 푸른 옷을 입은 여자 아이가 潘松을 알아보고는 놀라며 말하였다. “나오리, 어째서 여기에 계시는 거죠?” 潘松도 그 푸른 옷을 입은 여자 아이를 알아보았는데, 그 아이는 이웃집 王씨네 여식이고, 이름이 春春이라고 하며, 수일 전에 전염병으로 죽었다. 潘松이 말하였다. “春春, 너는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지?” 春春이 말하였다. “한마디로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나오리, 빨리 떠나세요. 여기는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만약 지체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거예요!”³⁵⁾

春春은 가볍게 침상 앞으로 걸어나와 潘松을 깨우고는 말하였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제가 나오리에게 알려주겠어요. 만약 나가게 된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공덕을 많이 쌓아서 저를 제도해 달라고 말해주세요. 이 花園은 ‘劉平事花園’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흰 옷을 입은 마님은 玉蕊娘娘이라고 하고, 그날 찾아 온 붉은색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는 赤土大王이라고 합니다. 이 할멈은 白聖母라고 합니다. 이 세 명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몰라요. 제가 나오리를 구해서 내보내줄게요. 나오리가 방안의 침상 끝에 가면 큰 구멍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구멍 아래로 내려가시고, 길을 따라 가시다가, 끝까지 간 다음부터는 예전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마님이 깨어나려고 하니, 빨리 서둘러 떠나세요!”³⁶⁾

35) 只見上首一個青衣女童認得這潘松，失驚道：「小員外，如何在這裡？」潘松也認得青衣女童是鄰舍王家女兒，叫做王春春，數日前，時病死了。潘松道：「春春，你如何在這裡？」春春道：「一言難盡！小員外，你可急急走去，這裡不是人的去處。你快去休！走得遲，便壞你性命！」

36) 只見春春躡腳來床前，招起潘松來，道：「只有一條路，我交你走。若出得去時，對與我娘說聽：多做些功德救度我。你記這座花園，喚做劉平事花園，無人到此。那著白的娘

王春春은 潘松을 구하기 위해 두 번이나 위험을 무릅쓰는데, 면대면(Face-to-Face)으로 그녀와 할멈, 玉蕊娘娘과의 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이들의 대립 구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玉蕊娘娘과 할멈은 潘松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반면에 王春春은 潘松을 몰래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무리에 속한 이들은 潘松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고 王春春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인간의 편에 서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요물들이 이미 많은 사내가 잡아와 해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인 潘松이 잡혀오자 그녀의 人性이 발화하면서 그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玉蕊娘娘, 白聖母, 赤土大王과 王春春과의 대립은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긴장된 장면을 조성하고 인물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또한 王春春의 등장으로 인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서사구조를 좀 더 곡절하고 리듬감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王春春의 등장으로 인해 세 요물의 獸性이 더욱 부각되며, 王春春의 人性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직접적인 상황에 처하여 구체적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개 속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³⁷⁾ 王春春이 구체적으로 潘松을 구해주고 난 뒤 이들과 어떻게 대립하며 그 과정이 어떠한지는 작품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王春春이 潘松에게 재차 이곳을 탈출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직접 그를 이끌어 탈출하게 하는 행동을 볼 때 이미 이들과 王春春의 대립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비록 작품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인물 간의 대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潘松의 구출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王春春과 세 요물의 대립을 통해서 비록 같은 무리 내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역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

娘, 喚做玉蕊娘娘; 那日間來的紅袍大漢, 喚做赤土大王; 這婆子, 喚做白聖母。這三個不知壞了多少人性命。我如今救你出去, 你便去房裡床頭邊, 有個大窟窿, 你且不得怕, 便下那窟窿裡去, 有路只管行, 行盡處卻尋路歸去。娘娘將次覺來, 你急急走!

37) 〈洛陽三怪記〉의 王春春과는달리, 〈西湖三塔記〉의 卯奴는 세 요물에게 奚宜贊을 탈출시키고, 다시 잡혀 온 그를 살려 달라고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은 주요인물 위주의 고찰에서 살펴볼 수 없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며, 비록 같은 부류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인물 간의 대립은 주요인물 위주의 대립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인물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관계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거나 지나쳐 버린 인물의 특징을 밝혀냄으로써 인물의 다양한 개성과 관계를 자세히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은 작품의 구조를 더욱 잘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또한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그 특징을 다른 인물과 연관 지음으로써 복잡하고 다채로운 인물 특징을 더욱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洛陽三怪記〉(《清平山堂話本》)에서는 세 요물(玉蕊娘娘, 赤土大王, 白聖母)와 王春春(鬼神)의 갈등 관계가 구체적인 대화나 마찰로 나타나 있지 않고 서술과정 중의 간접묘사와 암시로 드러난 반면, 〈西湖三塔記〉(《清平山堂話本》)의 요물(白衣娘子, 婆婆)와 卯奴의 갈등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卯奴가 두 차례나 白衣娘子에게 奚宣贊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에서는 白衣娘子와 卯奴의 대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杭州의 奚宣贊은 清明節에 길을 잃고 헤매는 卯奴를 데려와 십여 일을 집에 머물게 한다. 이후에 한 할멈이 찾아와 卯奴를 보호해주었던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奚宣贊은 아내와 어머니와 잠시 이별하고 할멈을 따라 四聖觀 옆의 외딴 집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白衣娘子를 만나서 雲雨의 정을 나누는데, 그녀는 奚宣贊을 맞이하자, 이전의 사내를 죽이고 심장을 꺼내어 奚宣贊에게 같이 먹자고 권한다. 奚宣贊은 너무나 놀라서 거절하자, 白衣娘子와 할멈은 사내의 간을 술안주 삼아 함께 먹는다. 이후 새로운 사내를 유혹해서 잡아오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奚宣贊을 묶어 놓고 심장을 꺼내먹으려고 한다. 이때 奚宣贊은 卯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卯奴는 白衣娘子에게 부탁하여 목숨은 부지하지만, 白衣娘子는 그를 철조롱에 가두어 버린다. 卯奴는 奚宣贊을 몰래 등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준다. 일 년이 지난 후 奚宣贊은 다시 할멈에 의해서 잡혀오고, 또다시 白衣娘子와 부부가 되어 보름을 머물다, 白衣娘子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바로 奚宣贊의 심장을 꺼내 먹으려고 한다. 奚宣贊은 다시 卯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녀는 白衣娘子에게 奚宣贊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한다. 白衣娘子는 奚宣贊을 다시 철조롱에 가두게 하고, 卯奴는 奚宣

贊을 집으로 돌려보내준다. 후에 奚宣贊의 숙부인 道士 奚眞人이 나타나 범술로 세 요괴를 잡아들이고 西湖에 세 탑을 만들어 요괴들을 가두어 버린다.

작품 속에서는 奚宣贊이 주요인물이며, 四聖觀의 요괴들(白衣娘子, 婆婆, 卯奴, 鬼使 등)은 그와 대립하고 있지만, 그와 비등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만약 四聖觀의 요괴 중에서 奚宣贊과 직접적인 대립을 하는 인물을 찾는다고 한다면, 奚宣贊을 끌어들이고 잡아들이는 ‘할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할멈도 작품의 전체적인 중요도에 있어서는 奚宣贊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작품에서 從從인물의 대립은 인간과 요괴에서가 아니라, 四聖觀의 세 요괴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從從인물의 대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白衣娘子와 卯奴, 그리고 할멈과 卯奴이다. 할멈의 역할은 사내를 잡아오는 것이고, 이 사내를 흘려서 생명을 해하는 것은 白衣娘子的 몫이다. 나중에 이들은 사내의 심장을 꺼내서 나누어 먹는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의 임무가 정해져 있고, 상호 공생을 하고 있다. 사내를 흘리고 심장을 꺼내서 먹는 등 四聖觀내에서의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白衣娘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세 요괴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白衣娘子와 할멈은 비록 서열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서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卯奴의 경우에는 이들과 사뭇 다르다. 卯奴는 이들에 비해서 서열이 낮으며, 언제나 이들의 시중을 들고 있다. 만약 白衣娘子와 할멈을 하나의 부류로 보고 卯奴를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부류로 본다면, 집단 내에서의 확연한 대립은 白衣娘子와 卯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卯奴는 할멈에 의해서 잡혀온 奚宣贊을 위해서 白衣娘子 앞에서 두 차례나 그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白衣娘子는 순순히 奚宣贊을 놓아주지는 않는다. 단지 지금 당장 목숨을 해치지 않을 뿐, 언제든지 목숨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두어 버린다.

娘娘은 (새로 잡아 온)그 사내를 불러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奚宣贊의 간을 꺼내려고 하였다. 奚宣贊은 그때 혼비백산하여 卯奴에게 가서 애걸할 뿐이었다. “남자, 내가 자네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卯奴는 娘娘앞에 가서 말하였다. “마님, 그는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娘娘이 말하였다. “그 놈을 가리로 덮어 씌워 버려라.” 力士 한 명이 철조롱을 가져와서 奚宣贊에게 덮어 씌워버렸는데, 마치 큰 산이 누르는 것처럼 꿈적도 하지 않았다. 娘娘은 (잡

혀 온)그 사내와 부부가 되었다.³⁸⁾

할멈은 바로 전각 앞에다 奚宣贊을 끌어다 놓았다. 전각에서 흰 옷 입은 여인이 내려오면서 말하였다. “宣贊, 네가 빨리도 도망갔구나!” 奚宣贊은 “마님, 용서해주세요!”라고 애걸하였다. 娘娘은 다시 奚宣贊을 머물게 하고 부부가 되었다. 반달이 지났을 무렵, 奚宣贊이 말하였다. “마님께 고합니다. 저에게는 노모가 계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심히 근심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갔다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娘娘은 이 말을 듣고, 눈썹이 일그러지더니 두 눈을 크게 부릅뜨며 말하였다. “네가 돌아가고 싶다고!” 이어서 소리쳤다. “귀졸들은 어디 있느냐? 당장 저 놈의 간을 빼오너라!” 불쌍하게도 奚宣贊은 장군주(將軍柱)에 묶였다. 奚宣贊은 卯奴를 부르며 이리저리 소리쳤다. “내가 일찍이 당신을 구해주었는데, 당신은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게요?” 卯奴는 娘娘 앞에 나아가 고하였다. “저 사람은 저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명을 거두어주십시오.” 娘娘이 말하였다. “이 못된 것! 네가 또다시 나를 말리는 구나! 바구니로 저 놈을 덮어 버려라! 저 놈 생명을 끝내버려라!” 귀졸들은 포박을 풀고 철조롱으로 덮어 씌웠다.³⁹⁾

白衣娘子와 卯奴의 대립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은 신분적으로 主從의 관계에 있고, 白衣娘子는 四聖觀의 요괴 중에서 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경우처럼 신분과 서열,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역할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계층인 卯奴가 白衣娘子에게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白衣娘子도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권력질서 체계는 인간사회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한 쪽을 강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혹은 서로 어느 정도 수용의

38) 娘娘請那人共座飲酒，交取宣贊心肝。宣贊當時三魂蕩散，只得去告卯奴道：「娘子，我救你命，你可救我！」卯奴去娘娘面前，道：「娘娘，他曾救了卯奴，可饒他！」娘娘道：「且將那件東西與我罩了。」只見一個力士取出個鐵籠來，把宣贊罩了，卻似一座山壓住。娘娘自和那後生去做夫妻。

39) 婆婆直引宣贊到殿前，只見殿上走下著白衣底婦人來，道：「宣贊，你走得好快！」宣贊道：「望娘娘恕罪！」又留住宣贊做夫妻。過了半月餘，宣贊道：「告娘娘，宣贊有老母在家，恐怕憂念，去了還來。」娘娘聽了，柳眉倒豎，星眼圓睜道：「你猶自思歸！」叫：「鬼使那裡？與我取心肝！」可憐把宣贊縛在將軍柱上。宣贊任叫卯奴道：「我也曾救你，你何不救我？」卯奴向前告娘娘道：「他曾救奴，且莫下手！」娘娘道：「小賤人，你又來勸我！且將雞籠罩了，卻結果他性命。」鬼使解了索，卻把鐵籠罩了。

여지를 보이고 있다. 할멈이나 卯奴, 다른 요괴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白衣娘子도 결코 자신의 욕정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이의 협조를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가 善과 惡, 혹은 이쪽과 저쪽 등 어떤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이원론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충돌을 일으키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奚宣贊이 등장하면서부터 내부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四聖觀의 요괴 중에서 卯奴는 白衣娘子와 할멈에 비해서 어느 정도 ‘人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해준 奚宣贊을 위해서 두 차례나 白衣娘子 앞에서 부탁하는데, 비록 이러한 청원의 행위가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상위계층의 관계가 엄숙하고 경직된 인간사회에서 만큼 위협적이고 긴장된 국면은 조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卯奴는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白衣娘子에게 奚宣贊을 위해서 부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서 白衣娘子는 ‘人性’보다는 ‘獸性’이 더 강하다. 그녀에게 奚宣贊은 지금까지 그녀가 해친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녀는 奚宣贊을 그녀와 동질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육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죽일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從從인물의 대립은 白衣娘子와 卯奴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두 인물의 대립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와 각각의 특성을 상세하게 엿볼 수 있다. 卯奴는 그의 실체(烏雞:가축)가 다른 두 요괴(白蛇, 水獺:동물)에 비해서 인간과 근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卯奴는 비록 요물이지만, 다른 두 요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奚宣贊이 卯奴를 구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과 비교적 친밀한 本性에 보다 더 깊이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白衣娘子는 卯奴의 부탁을 듣고서 바로 거절하여 奚宣贊을 잡아먹거나, 혹은 부탁을 들어주어서 그를 풀어주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절충의 방안을 선택한다. 이것은 당장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잠시 보류한 것이지 완전히 奚宣贊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록 卯奴에 비해서 人性은 부족하지만, 卯奴의 부탁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생각할 여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奚宣贊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그를

잡아먹으려는 본능이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白衣娘子와 卯奴의 인물 특징과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단순히 요물의 집단에서는 동일한 성격과 특징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西湖三塔記〉(《清平山堂話本》)에서 從從인물의 대립에는 白衣娘子와 卯奴의 갈등이외에도 奚真人과 요물의 갈등도 나타난다. 奚真人은 奚宣贊을 홀린 요물들이 끈질기게 찾아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고, 神將을 불러내어 요물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다. 이에 잡혀온 세 요물은 奚真人에게 奚宣贊을 해치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며, 奚宣贊의 잘못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여겨진다. 奚真人은 이러한 세 요물을 용서하지 않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라고 호통을 친다. 卯奴는 여러 차례 奚宣贊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그녀는 다시 奚宣贊에게 부탁을 해보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다른 두 요물(白衣娘子, 婆婆)과 달리 끝까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神將이 그녀를 때려서 본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본모습을 드러낸 그들은 요력을 잃고 奚真人에게 제압당한다.⁴⁰⁾ 〈西湖三塔記〉에서의 奚真人과 요물의 갈등은 다른 작품의 경우와는 달리, 요물의 저항이 상당히 대범하다. 요물들은 奚宣贊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 정당성을 강변하고, 어느 정도 人性을 보여준 卯奴는 奚宣贊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호를 부탁한다. 이미 실체가 드러난 요물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이들은 소멸되거나 제압당한다. 奚真人이 일방적으로 요물을 처벌하는 상황에서 요물의 정황과 변명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奚真人과 요물의 이러한 대립은 단지 眞인이 한순간에 요물을 제압하고 소멸시키는 구조보다, 보조인물들간에 상황에 따라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洛陽三怪記〉(《清平山堂話本》)에서는 보조인물인 白聖母, 玉蕊娘娘과 王春春

40) 神將唱喏:「告我師父,有何法旨?」真人道:「與吾湖中捉那三個怪物來!」神將唱喏。去不多時,則見婆子、卯奴、白衣婦人,都捉拿到真人面前。真人道:「汝爲怪物,焉敢纏害命官之子?」三個道:「他不合沖塞了我水門。告我師,可饒恕,不曾損他性命。」真人道:「與吾現形!」卯奴道:「告哥哥,我不曾奈何哥哥,可莫現形!」真人叫天將打。不打萬事皆休,那裡打了幾下,只見卯奴變成了烏雞,婆子是個懶,白衣娘子是條白蛇。奚真人道:「取鐵罐來,捉此三個怪物,盛在裡面。」封了,把符壓住,安在湖中心。

의 대립이 인물 간의 구체적인 대화나 행동이 아니라, 서술과 묘사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西湖三塔記〉(《清平山堂話本》)의 卯奴는 白衣娘子와 할멈, 奚真人과 요물의 갈등은 실질적인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 간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다르게 〈鄭節使立功神臂弓〉(《醒世恒言》第31卷)에서 ‘日霞仙子’와 ‘月華仙子’는 구체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 대결을 통해서 인물 간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日霞仙子和 月華仙子的 대결은 鄭信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鄭信은 張員外의 도움으로 가난함에서 벗어나지만, 張員外을 헐박했던 夏德을 때려 죽여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는 죄인을 억지로 옛 우물에 들어가라는 관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하에서 日霞仙子和 月華仙자를 만난다. 鄭信이 처음 만난 여인은 日霞仙子이다. 그녀가 잠든 사이 鄭信은 그녀의 神物을 빼앗고, 神物을 빼앗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요염한 자태로 鄭信을 유혹하고 그와 부부의 연을 맺는다. 어느 날 그녀가 출타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後宮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鄭信은 한가로이 지내다가 지루해져 그만 後宮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月華仙자를 만난다. 月華仙자는 鄭信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결국 그와 환락을 나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日霞仙子가 後宮으로 달려와 鄭信을 데려가려 하면서 月華仙자와 다툼이 일어난다.

푸른 옷을 입은 시녀가 와서 고하였다. “前殿의 日霞娘娘께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허둥지둥하며 鄭信을 감추려고 했으나, 숨기지 못하였다. 日霞仙子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서방님, 여기에 와서 뭐하시는지요?” 바로 鄭信의 팔을 잡아 前殿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月華仙자는 그것을 보고서, 눈썹을 치켜세우고, 두 눈을 부릅뜨며 말하였다. “언니가 그에게 시집간다면, 나는 어찌란 말이에요?” 그녀는 수십 명의 시녀들을 데려와서 곧바로 殿으로 달려와 말하였다. “언니, 내 서방님을 어찌서 뺏으려고 하는 건가요?” 日霞仙子가 말하였다. “동생, 내 서방님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였다. 日霞仙자는 鄭信을 숨겨 버리자, 月華仙자는 어쩔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함께 엉겨 붙어 서로 싸웠다. 한참을 싸우자, 月華仙자는 언니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크게 소리치며 공중으로 뛰어 올라 본래 형상으로 변하였다. 日霞仙子도 변하려고 하였다. 원래 鄭信이 그녀의 神物을 감추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서 月華仙子에게 지고 말았다.……月華仙자가 다시 쳐들어와서, 두 사람은 구름위에서 본래 모

습으로 변하여 싸웠다. 鄭信이 아래에서 살펴보니, 어찌 아름다운 선녀들을 찾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는 흰색, 하나는 붉은 색, 두 마리의 거미가 공중에서 싸웠다. 鄭信이 말하였다. “원래 저것이 본모습이었구나!” 붉은 거미가 저서 도망가고, 흰 거미가 뒤쫓아 가는 것을 보고, 鄭信은 활을 당겨 정확하게 겨누고는 화살을 쏘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흰 거미가 화살에 맞아 떨어졌다. 月華仙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소리조차 지를 수도 없었고, 바로 “鄭信, 이 배신자! 몰래 나를 해치려고 하다니.”하고 욕을 퍼붓고는 스스로 後殿으로 갔다.⁴¹⁾

두 여인은 서로 鄭信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日霞仙子는 月華仙子에게 그만 패하고 만다. 그 이유는 鄭信이 그녀의 神物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鄭信에게 사정하여 神物을 얻지만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서 싸움에서 다시 패하고 만다. 그녀는 鄭信에게 神臂弓을 가지고 月華仙子에게 활을 쏘도록 부탁함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月華仙子와 日霞仙子는 모두 鄭信을 차지하려고 하는 집념은 강하지만, 日霞仙子에 비해서 月華仙子는 간악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鄭信이 後宮으로 우연히 들어오자, 그녀는 鄭信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문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鄭信을 맞이한다.⁴²⁾ 이에 鄭信은 처가 있다고 말하고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⁴³⁾ 月華仙子는 바로 주연을 베풀어 그와 부부의 예를 올린다. 이어서 日霞仙子가 鄭信을 찾으러 왔을 때, 그녀는 재빨리 鄭信을 감추어 日霞仙子를 속이려

41) 只見青衣來報:「前殿日霞娘娘來見。」這女子慌忙藏鄭信不及, 日霞仙子走至面前道:「丈夫, 你卻走來這裡則甚。」便拖住鄭信臂膊, 將歸前殿。月華仙子見了, 柳眉剔豎, 星眼圓睜道:「你卻將身嫁他, 我卻如何?」便帶數十個青衣奔來, 直至殿上道:「姐姐, 我的丈夫, 你卻如何奪了?」日霞仙子道:「妹妹, 是我丈夫, 你卻說甚麼話!」兩個一聲高似一聲。這鄭信被日霞仙子把來藏了。月華仙子無計奈何, 兩個打做一團, 扭做一塊。鬪了多時, 月華仙子覺道鬪姐姐不下, 喝聲起, 跳至虛空, 變出本相。那日霞仙子, 也待要變, 元來被鄭信埋了他的神通, 便變不得, 卻輸了……月華仙子又來。兩個上雲中變出本相相關。鄭信在下看時, 那裡見兩個如花似玉的仙子?只見一個白, 一個紅, 兩個蜘蛛在空中相關。鄭信道:「元來如此!」只見紅的輸了便走, 後面白的趕來, 被鄭信彎弓, 覷得親, 一箭射去, 喝聲著, 把那白蜘蛛射了下來。月華仙子大痛無聲, 便罵:「鄭信, 負心賊!暗算了我也!」自往後殿去。

42) 那女子便道:「好也!何處不尋, 甚處不覓, 元來我丈夫只在此間。」不問事絲, 便把鄭信簇擁將去, 叫道:「丈夫, 你來也!妾守空房, 等你久矣!」

43) 「娘娘錯認了!我自有渾家在前殿。」

고 한다. 그녀는 鄭信을 단지 자신의 욕구충족의 한 대상으로만 여기는데, 이것은 鄭信과의 사랑보다는 그와의 욕정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月華仙子에 비해서 日霞仙子는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神物이 빼앗긴 상태에서 鄭信을 유혹하여 자신의 神物을 되찾고 목숨을 건지려 하였지만, 그와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鄭信을 신뢰하게 되고 그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鄭信에게 강압하지 않고 부탁과 청원을 통해서 鄭信의 도움을 이끌어 낸다. 이것은 鄭信과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서, 정신적인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처럼 日霞仙子와 月華仙子가 비록 겉모습은 아름다운 여인(본래는 거미요괴)으로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鄭信에 대한 진심은 각각 다르다.

이 작품에서 두 여인은 다른 작품과는 달리 직접적인 대화와 무력 충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어느 한 쪽을 부각시키고 다른 한쪽을 소멸시키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두 여인들의 심리적 갈등과 대결,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개성과 특징, 鄭信과는 또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十五貫戲言成巧禍〉(《醒世恒言》第33卷)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十五貫戲言成巧禍〉중에서 ‘靜山大王(山賊)’과 ‘老王(老人)’은 〈鄭節使立功神臂弓〉(《醒世恒言》第31卷)에서의 日霞仙子와 月華仙子와의 대립과 상당히 유사하다. 老王(하인)은 女主人인 劉大娘子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적인 靜山大王을 만나자, 그에게 劉大娘子(女主人)을 살리기 위해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통을 치며 맞선다. 그냥 못집이나 털려고 했던 靜山大王은 老王이 의외로 강경하게 나오고 심지어 그에게 달려들자,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목숨을 앗아간다.⁴⁴⁾ 이와 같이 보조인

44) 卻說那劉大娘子到得家中，設個靈位，守孝過日。父親王老員外勸他轉身，大娘子說道：「不要說起三年之久，也須到小祥之後。」父親應允自去。光陰迅速，大娘子在家，巴巴結結，將近一年，父親見他守不過，便叫家裡老王去接他來，說：「叫大娘子收拾回家，與劉官人做了週年，轉了身去罷。」大娘子沒計奈何，細思：「父言亦是有理。」收拾了包裹，與老王背了，與鄰舍家作別，暫去再來。一路出城，正值秋天，一陣烏風猛雨，只得落路，往一所林子去躲，不想走錯了路。……走入林子裡來，只聽他林子背後，大喝一聲：「我乃靜山大王在此！行人住脚，須把買路錢與我。」大娘子和那老王喫那一驚不小，只見跳出一個人來：頭帶乾紅凹面巾，身穿一領舊戰袍，腰間紅絹搭膊裹肚，脚下蹬一雙烏皮皂靴，手執一把朴刀。舞刀前來。那老王該死，便道：「你這窮徑的毛團。

물인 靜山大王과 老王의 직접적인 대화와 무력적 대결을 통해서 이들의 심리적 갈등과 그것에 수반된 행동을 살펴볼 수 있고, 양자의 대립 관계와 각각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고찰할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주요인물을 제외한 인물은 대부분 보조인물이다. 이들은 주요인물의 주변에 머물면서 그들의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사건의 곡절함을 유도하거나,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여, 이후 스토리 전개를 유도하기도 한다. 보조인물들의 관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從從인물의 대립이다. 從從인물의 대립은 주요인물과의 관계에서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비록 작품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從從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그동안 간과했던 보조인물들의 특징과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특징과 개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대립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서 인물 각각의 특징을 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從從인물의 대립은 보조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특징 및 다른 인물 간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Ⅲ. 나오는 말

宋元話本小說 속의 인물 대립 관계를 '善'과 '惡' 혹은 '人間'과 '妖物', '懲罰者'과 '受罰者'의 극단적 대립 관계로 설정하거나, '對象'을 마땅히 제거하여야 할 '惡' 혹은 '敵'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반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양자는 표면적으로 대립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즉, 어느 한 쪽이 부재하면, 나머지 한쪽도 존재할 수 없는 필연적인 '相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我須是認得你，做這老性命著，與你兌了罷。」一頭撞去，被他閃過空。老人家用力猛了，撲地便倒。那人大怒道：「這牛子好生無禮！」連搠一兩刀，血流在地，眼見得老王養不大了。

만약 상호보완적 시각으로 인물 대립 관계를 살펴본다면, ‘善’과 ‘惡’의 이원론적 갈등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主 주인공의 대립’, ‘主從 인물의 대립’, ‘從從 인물의 대립’으로 나눌 수 있다. ‘主 주인공의 대립’은 작품 속 주요인물 간의 대립을 말한다. 宋元話本小說에서 구체적인 작품과 인물 대립 관계로는 〈張孝基陳留認舅〉의 ‘過遷’과 ‘張孝基’, 〈小水灣天狐貽書〉의 ‘王臣’과 ‘天狐’, 〈趙伯昇茶肆遇仁宗〉의 ‘仁宗’과 ‘趙伯昇’ 등이 있다. ‘過遷’은 ‘張孝基’와 대비되어 ‘改過遷善’하는 人性을 가지고 있었고, ‘天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인 ‘王臣’을 농락하지만 치명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仁宗’은 ‘趙伯昇’의 문장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그의 재능에 대한 평가를 폄하하였다. 이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인물 특징과 다양한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인물의 대결 구조에만 국한되었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宋元話本小說에서 ‘主從 인물의 대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張古老種瓜娶文女〉의 ‘張公’과 ‘韋恕’, 〈鄭節使立功神臂弓〉의 ‘鄭信’과 ‘夏德’, 〈汪信之一死救全家〉의 ‘汪信之’와 ‘程彪’, ‘程虎’, 〈快嘴李翠蓮記〉의 ‘李翠蓮’과 가족, 이웃, 〈十五貫戲言成巧禍〉의 ‘劉大娘子’와 ‘靜山大王’ 등이 있다. ‘主從 인물의 대립’은 주로 주요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작품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보조인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인물과 보조인물은 서로 상호 반응하며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善人’과 ‘惡人’의 이중적인 대립에서 나타나는 편향적이고 일률적인 특징을 그려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인물과 보조인물 간의 대립과정에서 주요인물 뿐만 아니라 보조인물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형상과 성격은 인물의 특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從從 인물의 대립’은 주요인물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는 주요인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보조인물 간의 대립은 비록 주요인물과의 대립 관계의 정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작품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줄거리를 생동감 있게 전개하며, 주제를 강조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從從 인물의 대립’은 ‘간접적인 대립’과 ‘직접적인 대결’로 나눌 수 있는데, ‘간접적인 대립’에는 〈洛陽三怪記〉의 ‘세 요물(玉蕊娘娘, 赤

土大王, 白聖母)과 '王春春'이 있고, '직접적인 대결'에는 〈西湖三塔記〉의 '요물(白衣娘子, 婆婆)과 '卯奴', 〈鄭節使立功神臂弓〉의 '日霞仙子'와 '月華仙子', 〈十五貫戲言成巧禍〉의 '靜山大王(山賊)과 '老王(老人)' 등이 있다. 보조인물 간의 대립은 인물의 특징들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조인물 개개인의 특징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전체 인물을 응집시키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물 간의 특징과 미묘한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主主人公의 대립', '主從인물의 대립', '從從인물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편향적이고 일률적인 인물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물 간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보조인물 간의 관계와 특징을 통해서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서로 갈등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보조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서도 다양한 인물 특성을 고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작품의 인물 구성과 배치 관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인물의 특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인물 간의 관계를 폭넓게 살펴보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렇듯 작품 속 인물 간의 관계와 인물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단면적이고 평면적인 방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잡하고 다각적인 대립 관계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이들의 관계와 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인물을 배치하고 사건을 구성하고 배경을 조정하며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參考文獻】

- 馮夢龍編, 徐文助校注, 繆天華校閱, 《喻世明言》, 臺北: 三民書局, 1998年.
 馮夢龍編, 徐文助校訂, 繆天華校閱, 《警世通言》, 臺北: 三民書局, 1992年.
 馮夢龍編, 廖吉郎校訂, 繆天華校閱, 《醒世恒言》, 臺北: 三民書局, 1995年.
 洪楗編輯, 石昌渝校點, 《清平山堂話本》,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4年.
 熊龍峰等刊行·石昌渝校點, 《熊龍峰刊行小說》,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4年.
 無名氏原著, 程毅中, 程有慶校點, 《京本通俗小說》,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4年.
 程毅中輯注, 《宋元小說家話本集》, 濟南: 齊魯書社, 2000年.

- 周啓志, 羊列容, 謝昕, 《中國通俗小說理論綱要》, 臺北: 文津出版社有限公司, 1992年.
- 佛斯特著, 李文彬譯, 《小說面面觀》, 臺北: 志文出版社, 1995年.
- 成偉鈞, 唐仲揚, 向宏業 主編, 《修辭通鑑》, 臺北: 建宏出版社, 1996年.
- 劉世劍, 《小說敘事藝術》, 吉林大學出版社, 1999年.
- 馬振方, 《小說藝術論》, 北京大學出版社, 2000年.
- 黃慶萱, 《修辭學》, 臺北: 三民書局, 2000年.
- 金明求, 《虛實空間的移轉與流動—宋元話本小說的空間探討》, 臺北: 大安出版社, 2002年.
- 王平, 《中國古代小說敘事研究》, 河北人民出版社, 2003年.
- 張國風 지음, 이등연, 정영호 옮김, 《중국고전소설사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년.
- 常輔相, 〈淺談《紅樓夢》人物性格的對照方式〉, 《學術交流》, 1996年 第4期.
- 김귀식, 〈古小說에 등장한 補助人物 研究—門客, 侍婢 等を 중심으로—〉, 《人文科學研究》第19輯, 1997年.
- 丁謙, 〈西方文學中的伴生對偶原型〉,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8年 第5期.
- 褚燕, 〈中國古典通俗小說“人物對”現象文化心理分析〉, 《荊門職業技術學院學報》, 1999年 第1期.
- 李光, 陳宗榮, 〈論《聊齋志異》人物塑造中的對照意識〉, 《蒲松齡研究》, 1999年 第3期.
- 肖燕伶, 〈人物隨世運 无日不趨新—《快嘴李翠蓮記》言語衝突淺析〉, 《新疆財經學院學報》, 2005年 第3期.
- 辛穎, 〈論文學作品中的人物性格對照的三種方式及其作用〉, 《職大學報》, 2010年 第1期.

【中文提要】

研究宋元話本小說中人物對立關係時, 須脫離「善」與「惡」、「人」與「妖」、「懲罰者」與「受罰者」等「二元對立」的觀念, 要從互相之間的「密切關係」和「具體反映」角度來考察。所謂「對立」觀念, 從表面的意義來看, 雖有兩者極為衝突、對照的結構, 但從深層意義來看, 就有互相積極互動並透影反襯的關係。因此若從深層意義的一面, 即「互相補完」的觀點來看人物之間的對立關係, 除了已有「善」與「惡」之二元對立與衝突之外, 還出現許多不同的類型。這些觀點運用於作品中, 以人物角色為中心的考察方法, 就呈現為「主主人物的對立」、「主從人物的

對立」、「從從人物的對立」三種方式。「主主人物的對立」是主要人物之間的對立。宋元話本小說中的具體作品和人物關係，為〈張孝基陳留認舅〉中的「過遷」和「張孝基」，〈小水灣天狐貽書〉中的「王臣」和「天狐」，〈趙伯昇茶肆遇仁宗〉中的「仁宗」和「趙伯昇」等。每個作品中的人物，在很多方面表現出不同的特徵及互動關係。透過他們之間的對立關係，我們將能看到每個人物獨特的個性和特徵以及他們多種多樣的言行舉止。「主從人物的對立」是主要人物和次要人物的對立，具體作品和人物關係為〈張古老種瓜娶文女〉中的「張公」和「韋恕」，〈鄭節使立功神臂弓〉中的「鄭信」和「夏德」，〈汪信之一死救全家〉中的「汪信之」和「程彪」、「程虎」，〈快嘴李翠蓮記〉中的「李翠蓮」和家人、鄰居，〈十五貫戲言成巧禍〉中的「劉大娘子」和「靜山大王」等。主要人物和次要人物的對立過程，不僅突出地表現了主要人物的特征，也襯托了次要人物的複雜個性，這不但細膩地顯示出了人物形象和各種性格，並且更使人易於理解作品人物的特徵。「從從人物的對立」是次要人物之間的對立，可分為「間接對立」與「直接衝突」。有關「間接對立」的具體作品和人物關係，為〈洛陽三怪記〉中的「三個妖怪(玉蕊娘娘、赤土大王、白聖母)」和「王春春」，有關「直接衝突」的具體作品和人物，為〈西湖三塔記〉中的「妖怪(白衣娘子、婆婆)」和「卯奴」，〈鄭節使立功神臂弓〉中的「日霞仙子」和「月華仙子」，〈十五貫戲言成巧禍〉中的「靜山大王(山賊)」和「老王(老人)」等。次要人物之間的對立，比起前兩者對立更為突出次要人物的特征，可瞭解作品中的每個人物及人物之間的關係，具有積極的作用。雖然次要人物在作品中出現的比例、頻度並不高，並沒有進行對作品產生影響的具體情節，但在以主要人物為主的細節進行中，可彌補經常忽略的許多因素，使得所有人物集聚於敘事意圖與策略，可調整情節進行的節奏，並改變氣氛而引致主題思想，具有重要的意義。人物之間的對立關係研究，可透過「主主人物的對立」、「主從人物的對立」、「從從人物的對立」，更為深入考察人物之間所呈現出的複雜關係和積極反應。這對理解作品中微妙且複雜的人物特徵和故事結構，及襯托主題思想和豐富的內容涵義，都起到了重要的作用。

【主題語】

宋元話本小說人物, 對立關係, 主要人物, 次要人物, 人物角色

투고일: 2012. 7. 13 / 심사일: 2012. 7. 20~8. 5 / 게재확정일: 2012. 8. 10